

2014 교훈과 2015 과제

지도층 '나라 바로 세우기' 나설때다

2015년 새해에는 각계 지도층이 힘을 합쳐 의회정치 회복,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실행, 법치사회 확립, 공공기관 개혁, 경제난 극복, 중복좌파와 방위산업 비리 척결, 한국사 교과서 왜곡내용 시정, 건국기념일 제정, 언론의 비판 감시기능 강화 등 나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정부산하단체,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동을 무엇보다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려 종합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되 세월호와 사회 유력인사 및 정치인들의 구조적 관련성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언론인회는 11월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시욱 전 문화일보사장,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장관, 이택휘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을 초청, 문명호 주필의 사회로 2014년을 회고하고 2015년 새해소망을 듣는 특별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좌담개회 배경을 설명하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다사다난을 넘어 대재난과 비정상, 불법이 횡행한 한해였다”며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일들이 많아 국민불안을 씻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남시욱 전 문화일보사장은 “새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정치 경제 사회 언론 교육 종교 등 각계 지도자들이 1차적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 (본회 상담역·전 문화일보 사장)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장관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택휘 ·동원학원 이사장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좌담

사회: 문명호 본회 주필

정리: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사진: 이철영 본보 편집위원
때: 2014년 11월 18일 곳: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엠바고룸

2·3면에 좌담내용



왼쪽부터 이택휘 이사장, 남시욱 교수, 송정숙 전 장관.

책임을 지고 솔선수범해 나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 불만세력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하나로 버텼다”며 “외교안보와 제대로 된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 국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며 공무원연금개혁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각종 연금을 통합하되 그 전단계로 연계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장관은 “새해에는 1948년 8월15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건국기념일로 하고 국경절로 제정하기를 바란다”면서 “그 의미는 국가정통성과 한국인 정체성 확립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일을 이념전쟁 하듯 하면 해결이 어렵고 암담할 수밖에 없다”며 “이념이나 정권차이를 초월해 국정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해도 여러가지 의미에서 합치는 일을 멈추었으면 좋겠고 모든 일을 상대방 합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택휘 전 서울교육대학교총장은 “역대 정부에서 대학 수와 정원을 크게 늘려 놓아 정원미달 대학이 속출하는데도 전국 300개가 넘는 고등교육기관인 사립대학에 국민세금으로 연간 1조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인들의 인기영합

복지정책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정책의 모순점을 하나 하나 예로 들어 가며 설명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보다 더 시급한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산하단체 및 공기업의 방만한 재정운영 혁신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적 왜곡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시정하는 일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새해 소망으로는 정치회복과 법치사회 확립, 지도층의 진정성을 꼽았다.

한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선(先) 원인 파악, 후(後)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세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를 밝혔으며 세월호와 정치인 및 사회 유력인사들의 구조적 관련성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데 입을 모았다. [K]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회우)



악몽이야! 빨리 깨라

본회2014 송년회-고회회우 축하연 12월 17일 프레스센터 20층

대한언론인회는 12월 17일 오후 5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고회 회우(만 70세) 축하연을 겸한 송년모임을 갖습니다. 회우 여러분께서는 이 기사로 초청장을 대신합니다. [K]

〈고회회우 명단〉

구자건 권영국 김수남 김시복 김휴선 나용경 문 청 서옥식 양성목
유용현 유재철 이영일 전민조 정건일 정구종 정종표

政治회복 - 法治사회 확립

좌담

2014교훈과 2015과제

김은구(인사말) 한 해가 지나가면 늘 다사다난 했던 해라 말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사다난이 아니라 재난과 비정상, 불법이 횡행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신문의 1년치 제목을 보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의 용어가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정치실종 상태를 보다 못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대한언론은 연초에 새해의 주요 어젠다를 ‘대한민국 정치복원’으로 설정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엔 ‘국민대각성운동’으로 적폐 척결과 국가개조를 주창했습니다. 이제 세 분 전문가들께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전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문명호) 세월호 참사로 국민 모두가 슬픔과 고통을 받고 많은 갈등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정치에 미친 영향과 과제를 말씀해 주시죠.

남시욱 역사가 진전 할수록 발달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줄 정도로 어렵고 고통스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관창은 일도 있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이라든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역사적으로 보아 올해 갑오년의 큰 사건입니다. 양허규정이 많아 무늬만 FTA란 비판도 받지만 국제정치적 영향으로 볼 때 변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회의 모순점이 쏠려 터진 것이어서 대각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정치가 실종 상태를 보였을 뿐이죠. 방산비리를 보면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 일대의 시위가 많이 불어나고 특히 경제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안합니다. 경제 하나로 버텨왔는데 어려움이 구조적 장기적 추세로 가면 큰 일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송정숙 참사를 보면서 많은걸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가 쏠려 터지고 적폐가 크니까 터져도 무섭게 터지는구나, 그리고 속으로 끓고 그동안 쌓여온 모든 화농과 같은 부조리는 다 도려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깨닫고 정리해보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택휘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조리를 반영한 것이란 두 분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이슈가 단기적으로 부글부글 끓는 우리 사회에 감히 다른 건 문제제기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담론이더니 완전히 냄비현상에 지나지 않았어요. 시끄럽게 국력만 낭비한 셈이지요. 먼저 원인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책임소재를 밝혀 정치적, 법적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유병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언론에 3, 4개월 도배하다시피 다루어졌지만 그만이에요. 실망을 넘어 절망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사회가 아니란 것도 느꼈어요.

남시욱 국가적 대재난 사건이 터지면 선진국의 경우 대개 시민단체가 움직이거나 민간인들이 위원장을 맡아 진상조사를 하고 발표합니다. 미국의 9·11사태 때도 그렇고 선진국에서 그렇게 합니다. 정부 관리에 맡기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조건반사적으로 국가안전처를 만들었는데 해양경찰 대신 다른 이름으로 해보야 경찰 역할 그대로이지 변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검찰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구조적 비리를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사회 송 장관께서는 정부 요직경험도 있으신데 정부의 조직개편을 어떻게 보십니까.

송정숙 그것이 필연성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절실한 느낌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바꾸어 본 수준이라고 할까요, 변화시키는 건 안 한 것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은 구두 위로 발등을 굽는 격이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건 아닌 것 같아요. 제도가 구조를 현실과악을 통해 개조하거나 개선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택휘 일부 정치세력이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



남시욱 교수



송정숙 전 장관

국회 선진화법 개정 공무원 연금 개혁 시급

정부산하단체-공기업-지자체 방만한 재정운용 시정을

세월호 원인-책임소재규명 구조적 관련성 파헤쳐야

용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처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봅니다. 건국 후 대형참사는 많았지만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원인분석이 불분명하니까 모든 게 흐지부지됩니다. 세월호참사를 둘러싼 사회 유력인사와 정치인들의 구조적 관련성도 파헤쳐야 합니다. 다 믿을 건 못 되지만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 심지어 대통령 빼고는 다 관련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사회 특별법 조사가 기대되는군요.

이택휘 사건입니다만, 특별법은 왜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처리하고 남는다고 보거든요.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어차피 특별법을 만들었으니까 철저하고도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불신이 특히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무엇이 문젭니까.

남시욱 세월호사건 같은 국가적 불상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집권세력을 흠집 내려는 식으로 악용해선 안 됩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오히려 국회가 마비되고 식물국회를 면치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말만 해놓고 지키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세비는 월급이 아니고 근로보상도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세비라는 말을 수당이라는 말로 고쳐 부르기로 했죠. 수당을 받는 것인데 많이 증액돼 있어요. 국회출석을 하지 않으면 수당도 당연히 깎아야 합니다. ‘노 워크 노 페이

(no work no pay)’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으니가 대의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권력화 돼 있을 뿐이에요. 제대로 된 정치복원이 시급합니다.

이택휘 세월호사건이 정치와 정치인 불신을 조장했어요.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측면만 부각시켰지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불신이 더 높아졌죠.

송정숙 국회신뢰가 너무 떨어져 걱정입니다. 그래도 그 정치를 믿고 정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게 국민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라도 진지하게 해 가면서 바꿔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택휘 대의정치 중심이 국회인데 국회의 품격이 너무 떨어졌어요. 공천제도와 전국구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남시욱 정부여당에서 시급하다는 경제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언론에서 이에 관해 특집으로 심층보도해야 합니다.

송정숙 언론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을 한 사람 한 사람 조사 평가하는 거라도 자세히 보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회 정부와 우리 사회의 개혁과 혁신은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남시욱 공무원연금개혁은 연내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야당이 우선 반대하죠. 갑자기 내놓고 공문화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5백억원이 정당 보조금으로 국민세금에서 나갑니다. 정책 개발하라고 주는 것이지 나눠가지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선거의 해에는 1천억원이나 나간적도 있어요. 정당은 평소에 이 돈으로 정책을 연구 개발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레놓고 여야가 밀고 당기기만 해요. 박대통령 혼자만 뛰는 형상이에요. 연금개혁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선진국의 경우 연금이 나눠져 있지 않고 통합돼 있죠. 유시민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 할 때에 연금을 통합하되 그 전단계로 연계제도를 도입하자면서 법안을 낸 적이 있어요. 여야가 묵살했는데 연구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택휘 남 사장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조정돼야 합니다. 연기금 운영의 정부 책임을 따지고 싶어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사태때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한 증권시장에 공무원과 군인연금에서 몇 조원을 공적자금으로 끌어다 썼다가 강통계좌를 만든 적이 있어요. 하루 아침에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요. 대선 때마다 작은 정부를 공약합니다. 그러나 일단 정권을 잡으면 종전 정부보다 더 큰 정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불어난 정부 산하단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 예산을 쓰는 산하단체가 부서별로 적게는 한 부서에 20개, 많게는 50~60개나 됩니다. 공기업부채가 700조입니다. 그럼에도 흥청망청 돈을 씹니다.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지자체마다 산하단체를 만들어 여기에 또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부실 공적조직을 줄이면 누리예산이나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 산하단체 공조직만 개혁하면 개혁은 상당부분 이루어집니다. 연금개혁보다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회 무상급식, 무상보육, 신혼부부 임대주택보급 같은 복지는 어느 수준이어야 할까요.

남시욱 복지를 꼭 해야할 대상에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좋을 곳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택휘 복지를 교육측면에서만 보아도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2년제와 4년제를 합쳐 3백70개가 되고 이중 사립대학이 3백개가 넘습니다. 이들 사립대학에 정부보조금이 연간 1조 원이상 국민세금으로 지원됩니다. 더구나 지방대학 중

3면으로 이어집니다.

경제난 극복 國力 키워야

좌담

2014교훈과 2015과제

2면에서 이어집니다.

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때 전문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 시키고 국립대학을 늘려놓는 등 대학정원을 크게 불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이나 광주 전남지역 같은 곳의 대학분포를 들여다 보면 가관입니다. 정치인들이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결과들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 대학 들어갈 학생 수는 인구감소로 줄어 들고 정원미달 대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학에 국민세금을 퍼붓는 겁니다. 여기서 복지운운 하면서 정치권에선 대학등록금 반값 얘기를 꺼 내놓기까지 했죠.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데 그런 대학에, 더구나 사립 고등교육에 국민세금을 왜 쏟아 부어야 합니까. 현실적인 근본 문제를 고치거나 나중생각은 하지 않는 너무나 안이한 근시안적 발상이지요. 대학입학 수능시험 한번 치르는데 8백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능시험 0점을 받아도 앞에서 말씀드린 정원미달 대학에서 모셔갑니다. 무엇 때문에 수능시험을 봅니까.

사회 기가 막히는군요.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 양상에 대해 살펴보죠.

남시욱 이념갈등은 그 양상과 해소방법이 문제입니다. 이념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조작 왜곡하거나 증오감을 갖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친일파로 몰거나 폐지된 연좌제로 얹어 넣습니다.

송정숙 이념논쟁에 관련한 공격을 선점하는 측이 공격을 일삼고 방어 밖에 못 하는 세력은 계속 방어만 하는 양상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문제처럼 보입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혹은 정권차원을 초월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정치투쟁을 벌이면 모든 게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택휘 유독 한반도에서만 이념갈등이 남아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진보는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좌파 가운데 종북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청산해야 할 대상입니다. 정치지도층, 언론,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몰고 가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시욱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국민의 힘, 여론의 힘으로 고쳐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입니다. 1948년 헌정이 시작된 이래 운영하던 제도를 하루 아침에 바꿔 버렸어요.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가 되고 식물국회가 오래 가면 식물나라가 돼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다수결원리를 오해하는데 숫자가 많은 세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토론을 전제로 하고 토론과정에서 어느 쪽 여론이 다수냐를 보는 겁니다.

이택휘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름에 걸맞지 않는 법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사회 남북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쪽에서 취한 5·24조치를 관계개선을 위해 해제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남시욱 일도양단식으로 말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북측에서 사과를 하거나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않는 그냥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핵개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해제 주장을 하기 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합니다. 외교만은 초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택휘 강 대 강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평가가 옵니다. 원칙을 자주 변경하면 안 됩니다. 북측은 남한을 만만하게 봅니다.

송정숙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참아왔는데 전제도 없이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이택휘 박근혜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노무



이택휘 이사장



문명호 주필

8월 15일 건국기념일로 국가 정통성-정체성 확립을

이념-정권차원 초월 國政대안 찾아 나가야

인기영합 복지정책 私立大 국고지원 말 안돼

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 라인 핵심 간부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은 평가할 만합니다.

남시욱 동북아평화구조도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보다 정제되고 고급스런 정책으로 평가합니다. 신문에서는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는 경향인데 좀 더 관심을 갖고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 한반도 주변 환경에서 우리 외교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남시욱 얼마전 ‘미·중 택일적 사고방식을 버려라’ (사설제목: ‘중과는 경제, 美와는 안보’ 이분법적 접근의 문제점’)라는 사설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설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력도 커졌어요.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평화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박근혜정부가 그 점에 착안해 동북아평화구조를 내건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국력, 경제력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조기 통일이 안 되더라도 중국에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것처럼 평양에 가서 냉면 먹고 골프치고 오면 돼요. 전쟁위험이 없어지면 군사비를 줄인 돈으로 복지에 쓸 수 있습니다. 정치인 지식인들도 연구를 해서 평화구조정착을 위한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외교연구원이 얼마 전 중국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언론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이 점에 관해 언론의 위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정숙 여러 가지 의미에서 험뜯는 일을 멈추었으면 합니다. 모든 일을 상대방 험뜯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회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 반환연기는 적절한 조치가 아닐까요.

남시욱 그렇습니다.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택휘 국방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40~50%를 우리가 부담하지만 전작전권을 가져오면 전액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우리 사회내의 종북세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택휘 듣기에는 꽤 많다고 해요.

남시욱 지하당을 구축해 남한을 월남화 하려는 북한의 전략전술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남한내 종북 세력이 더 무서운 주적입니다.

송정숙 종북세력 내부에서 노선과 관련해 생각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일성체제가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 과거 박헌영 중심의 남로당세력을 미화하는 역사연구 작업이 태동하고 있다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택휘 저는 유럽식 사회주의로 가자는 세력이 조직화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종북과는 다르지요.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언론계 출신도 포함돼 있고 누구라면 알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아직도 좌파의 주도세력은 종북입니다. 북한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서약하고 돈 받고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사회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동인데 현행 실정법에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이택휘 실정법 위반이지요. 거기서도 법치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너무나 다르게 왜곡 기술돼 있는 한국사교과서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근현대사의 독립운동과정에서 우남 이승만을 빼버려 독립운동역사가 소설을 쓴 것 밖에 안 되고 있어요. 또 유관순열사를 친일파로 몰아 교과서에서 들어냈다가 다시 넣긴 했지만 부실하고, 독립기념관의 경우에도 직접 현장 확인을 해보니 완벽하게 복원이 안 돼 있어요. 국정으로 하거나 정부에서 교과서기술 원칙을 세워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사 왜곡은 종북과도 밀접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바로 잡지 않으면 종북세력 척결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 합니다.

사회 역사왜곡 사학자나 전문가들이 좌파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송정숙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큰 흐름을 주도하는 다수가 그렇습니다. 선배 학자들은 이미 다 물러나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회 국사교과서가 그 전에는 국정이었었는데 언제부터 국정을 폐지했나요.

이택휘 노태우 정부때 폐지했습니다.

송정숙 좌파 역사학자들이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폐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택휘 김대중 정부 때는 과거사진상위원회를 만들어 그들이 국사학계 주류를 이루었어요. 역사왜곡이 심각합니다. 일본은 국정이 아니지만 문부성에서 지침을 주면 그대로 다 따라 갑니다.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하면 그렇게 다 따라오는 식이지요.

사회 마지막으로 새해에 거는 기대라 할까, 희망을 말씀해 주시죠.

남시욱 새해는 광복 70주년, 6·25전쟁 65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언론 교육 종교 등 각계 지도자들이 노력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송정숙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기념일로 하는 국경절을 제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택휘 첫째, 진정한 의미의 의회민주주의로서 정치회복이 이루어지고 둘째, 법치사회가 되고 셋째, 사회지도층부터 진정성을 갖는 진정성 회복운동이라도 일어났으면 합니다.

사회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東北亞 세력전환 길목 外交시험대

올해는 세계 세력균형의 재편을 초래한 제1차 대전이 발생한지 100 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편 동북아시아에서도 한반도의 패권을 둘러싸고 청일전쟁이 발발 한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中國 G2지위 확고히 구축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동북아에서 새로운 세력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중국의 부상을 말한다. 2010년을 계기로 중국은 경제규모에서 이미 일본을 능가하여 G2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중국은 나아가 새로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급속히 군비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여름 캘리포니아의 한적한 시골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신형 대국관계’를 화두로 오바마 대통령과 매우 심각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에게 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중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동아시아 세력권을 형성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중국은 금년 봄 상해에서 개최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정상회의’(CICA)에서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 안보’ 구상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 밖에도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설립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에 대항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에서의 방공식별구역의 일방적 선포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관할권 확대는 직접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미국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 외교(Assertive Diplomacy)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 한국, 호주 등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가을 언급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정책과 재균형 전략(Rebalancing-Strategy)은 모두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미국은 아시아 회귀 정책이 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설명을 수긍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美-中 경쟁하며 의존하는 관계로

미국과 중국은 상호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지난 20년간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엄청난 자국의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차 대전 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라는 세계 질서 덕분에 중국은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요구하는 ‘신형 대국관계’가 기존의 세계질서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시주석은 ‘중국 꿈’의 실현을 내 걸고 있는바 이것은 지난 한세기 반 동안 잃어버렸던 영광과 자존심을 되찾아 보자는 다분히 감성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서 기존의 세계질서를 존중하고 국제 평화와 지구적 과제(Global Issues)에 대해 더욱 큰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그에 걸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새로운 세력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러한 적응과 양해는 조그마한 것이라고 할 지라도 심리적으로 후퇴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간 상호 부단한 전략적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중국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센카쿠-歷史 인식싸고 어려운 일본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전환 과정에서 미국보다 오히려 일본이 더욱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본다.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제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분쟁은 동북아 지역정세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중국과 일본관계는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다. 불행하게도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적 자세는 시진핑 주석으로 하여금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는 정책을 자연스럽게 구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일본을 겨냥하여 한국과의 ‘역사공조’를 제의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라고 본다.

금번 북경APEC 정상회담에서 중·일 간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여러 가지로

특별기고



유명환

·세종대학교 이사장
·전 외교통상부장관

歴史 잊어서는 안되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로 못가는것도 문제

통일된 한국이

주변국 모두에 이익

인식 심어줘야

장기적 국가이익 고려

원-원관계 되도록

확고한 원칙 필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물론 시주석이 APEC 주최국의 호스트로서 일본의 끈질긴 정상회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 외교부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본다. 중·일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고 해서 박대통령이 초조해 할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시주석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상호 국가이익을 냉철히 고려한 것이다. 국가간의 관계는 정상간의 막연한 우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가이익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간에는 영원한 우정도 그리고 영원한 증오도 없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와 악수하는 시주석의 모습에서 볼 때 그는 소위 ‘표정 외교’를 통하여 국내 여론을 다스리고, 나아가 박대통령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러시아는 과거 구한말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한반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간 구 소련 체제의 붕괴와 민주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인 난관 등으로 인해 러시아는 동아시아에 적극적인 관여를 못해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항상 ‘훼손꾼’(Spoiler)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전쟁은 물론 한반도 분단과 관련하여 커다란 책임이 있다. 러시아는 유엔의 남북한 동시선거에 의한 통일 정부 수립안을 반대하고 일정기간에 걸친 신탁통치를 제안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국제정치적 감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고 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년도 안된 시점에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필요한 무기와 군사장비를 지원했다.

러시아 ‘훼손꾼’ 역할 주저않아

2010년 천안함 사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안 추진 당시 러시아의 돌변한 부정적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러시아의 해군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인양된 천안함 선체를 직접 검사하고 모든 민감한 자료를 제공 받았다. 이들 전문가들은 우리정부의 조사 결과에 동의했다. 그러나 막상 안보리 토의 시 러시아의 태도는 이와는 전혀 상관 없는 것이었다. 한국과 러시아는 작년 푸틴 대통령의 방한 및 정상회담을 통하여 시베리아 개발 등 여러 가지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하였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반면, 지난주 북한의 실효자인 최룡해 당 중앙위 서기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한 것 같아 보인다. 러시아는 작년에 북한이 그간 빌려다 쓴 부채 100억 달러를 탕감해 주고 나진항 부두의 일부를 장기 임차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는 나진항과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을 잇는 철도를 보수하여 화물운송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 러시아 외교는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보상하고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북한은 과거에도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잘 활용하여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는 줄타기 외교를 한 바 있다. 푸틴이 중국에 앞서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서방 세계에 비춰지는 그의 이미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북한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접근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것 역시 북한이 중국의 푸대접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대응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항상 북한 카드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과 일정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높은 우선 순위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아베 정부로서는 납치문제 재조사결과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美-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가야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 전환 과정과 이에 따른 외교관계의 패러다임을 관찰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은 작금의 한반도 주변상황이 구한말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자주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 세력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의 상황은 19세기 말과는 전혀 다르다. 이제 한국은 극도로 낙후된 구한말의 조선이 결코 아니다. 한국은 세계 14위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다. 다만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은 동북아 정세를 과거 120년전 보다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5면으로 이어집니다.

보편? 선별? ‘지속가능 福祉’가 맞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거부, 누리과정(3~5세)에 대한 교육감들의 예산편성 거부 선언으로 촉발된 무상복지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일과 만과의 파장을 낳고 있다. 여야를 떠나 재원 고려 없이 포퓰리즘으로 도입한 무상복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복지논란이 점화된 배경에는 세계화의 진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민의 삶이 불안하고 피폐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복지란 ‘사람이 일평생 동안 부딪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라가 가난할 때 국민은 감히 국가에 대해 복지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때는 경제성장을 통해 개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즉 성장이 최고의 복지였던 셈이다.

유럽이 처했던 상황과 달라

신자유주의적 경쟁심화, 빈부격차, 저출산 고령화, 가정 해체 등 당면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 속에 국민은 국가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기 시작했다. 이는 선진국들이 거친 과정이고 우리에게도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것은 맞다.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복지지출 순위는 29위로 최하위다. 우리나라 바로 위가 멕시코다. 멕시코보다 못한 복지지출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러나 OECD 국가 가운데 복지 지출 증가율이 1위인 나라도 한국이다. 복지 지출 비중은 가장 낮는데 복지 지출 증가율은 가장 높은, 이 희한한 현실이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딜레마를 웅변하고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는 합당하고 시의적절하지만 문제는 우리 복지정책의 방향 순서 속도가 잘못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이 복지국가를 추구하던 시절과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판이하다. 유럽에서 전후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했던 것은 냉전체제에서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로 인해 국방비 부담이 적었고, 경제는 성장을 구가했으며, 국민이 막대한 조세부담에 합의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 이 세 전제조건이 없다.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엄청난 국방비 부담을 지고 있고 성장은 정체기에 들어섰으며 국민은 복지 확대를 원하면서도 부담이 늘어나는 걸

특별기고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복지 지출 증가율

OECD국중 최고

정책방향-순서-속도

조절할 필요

정치권 ‘공짜’약속

돈없는 현실앞에

‘허무개그’로 전략

반대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 똑같이 복지를 내걸었음에도 증세를 주장한 민주당 대신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새누리당을 국민이 선택한 것이 그 증거다.

더욱 나쁜 점은 복지이슈에 정치권의 이해가 얹혀진 것이다. 영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플랜을 내놓을 때엔 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베버리지보고서는 전쟁 중에 보수당 정권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처절은 이를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무시한 반면 노동당은 이의 실현을 약속해 전후 총선

오늘의 내대근

이 홍 우(본보 편집위원)



〈11월 20일 채널A TV 시사방법 방영〉

에서 승리했다.

우리는 베버리지보고서와 같은 복지 플랜이 없이 총선 대선과정에서 정치권이 중구난방으로 ‘공짜’ 복지를 약속하며 보편복지가 도입됐다. 2011년 민주당이 “애들 밥 한 끼 먹이는 것도 못하느냐”고 무상급식을 주장하자 당초 선별복지를 주장하던 새누리당은 바로 야권의 보편복지 프레임에 말려들어갔다. 2012년 대선은 우리나라에선 처음 치러진 ‘복지 대 복지’의 대결이었다.

도입되면 중단없이 시행돼야

보편복지는 수혜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고 선별복지는 수혜자

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해 취약계층에게 그들이 필요한 내용의 복지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각기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떤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지만 보편복지나, 선별복지나 논란은 ‘돈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허무개그가 되고 만다. 무상급식은 시행한지 3년, 누리과정은 시행한지 2년이 되지 않아 감당할 수 없는 계산서를 국민 앞에 내놓고 있다. 보편복지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최근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재원이 핑크가 난 것은 현재 재정상황에서 보편복지는 시기상조임을 보여 주고 있다. 뚱뚱한 사람이 작은 옷을 입으려니 옷이 찢어지는 것이다.

복지는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아이들에게 주었던 사탕을 다시 빼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그래서 도입에 신중해야 하고 대신 일단 도입했으면 중단 없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무상급식-누리과정-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기초연금으로 이어지는 보편복지를 향한 걸음을 시작했기에 복지를 구조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혼합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는 논란은 의미가 없다. 우리 복지의 방향은 보편복지, 선별복지도 아니고 지속가능한 복지밖에 없다. 본래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세대의 생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 똑같은 원칙을 복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미래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복지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보편 복지국가의 대표 격인 영국은 이미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고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가 아동수당 삭감 등 다양한 복지 개혁에 착수했다. 복지국가가 되려면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이 효율적 복지체제와 결합될 때만이 가능하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강력한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보편과 선별을 믹스한 한국형 복지정책으로 이 무위한 복지논란을 끝내야 한다. 그러자면 정치권이 복지를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일부터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국]

4면에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외교적 과제도 더욱 많아 지고 더 많은 재원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 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언론자유, 법의 지배 등을 우선적 가치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특히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일본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일본과는 역사인식의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국과는 달리 과거35년 동안 식민통치라는 뼈아픈 상처로 인해 과거사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물론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되지만 역사에 사로 잡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도 안 된다. 과거를 부정하거나 과거의 감정에 안주하

지 말고, 만약 우리가 과거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한국이 주변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모든 주변국가와 전방위 외교를 전개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이고, 투자뿐만 아니라 인적 왕래도 가장 많은 나라로서 상호 깊은 의존 관계가 성립되었다.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부단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21세기는 냉전시대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윈-윈 하는 관계’가 되도록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으로 대결 국면으로 간다면 한국의 입장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장기적 국가 이익을 고려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원칙 없는 외교는 양측 모두로부터 불신을 초래한다. 그렇다고 길의 중간을 가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가는 양쪽에서 돌팔매를 맞게 된다. [국]

공무원 연금개혁 대충 해선 안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거센 충돌 국면을 넘어 절충점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지만 공무원연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무원 가입자 단체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수긍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의 강도와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협상과 타협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번 개혁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고통분담 필요

네 번째 이루어지는 이번 개혁에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의 미래 비전이 보여야 한다. 혹자는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논지에서 어차피 여건이 변하면 또 고쳐야 할 것인데 적당하게 고치고 넘어가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제도 개선을 거듭한 결과 법을 개정하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비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급격하게 개혁하지는 것과는 다르다. 공무원연금의 미래상을 확실하게 그리되, 이러한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연금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도개혁은 지속가능성, 소득보장성, 형평성 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원칙간의 우선순위가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세 가지의 원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금급여수준을 낮추고 부담수준을 높여서 수지균형에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이냐는 공무원연금 재정의 심각도에 대한 인식정도가 결정할 것이다. 2010년 이후 입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65세 연금수급개시연령과 유족연금 급여율(60%)은 기존공무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금수급자도 어느 정도의 고통분담이 필요하고, 연금이외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연금액이 다소 높다고 인정되는 연금수급자는 추가적 부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과제는 공무원연금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의 공무원연금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에는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현행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 퇴직금 성격을 분리할 것인가가 논점이 될 수는 있지만, 정부재정 사정 등으로 퇴직금의 사전적립이 어렵다면 퇴직금 성격의 분리 여부는

특별기고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사회보장위원회위원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미래비전 확실히 하고 방법-과정 단계적 추진

국민연금형태 지향 급여-부담 균형화

野-공무원단체 동참명분이 중요

실제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외형적으로 퇴직금 성격을 분리한다 해도 연금화된 퇴직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일괄 관리하여 지급한다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과 통합되어서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신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과 동일한 형태의 급여산식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연금의 미래 비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2007년도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과정에서 공무원가입자 단체, 전문가, 정부가 필요성을 이미 공유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그 당시 여당이었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개혁이지만 의외로 쉽게 합의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신규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형태를 지향하면서 기존공무원의 경우는 급여와 부담을 균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공무원연금개혁은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합의로 이르는 과정이 관건이 될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여야 합의없이 어떠한 법도 처리할 수 없는 국회 현실을 고려할 때, 새누리당이 홀로 연금개혁을 할 수는 없다.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앞서나가고 있는 여당과 정부를 따라잡기에 힘겨운 모습이 역력하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만큼, 야당이 함께하고 공무원단체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와 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중심으로 각계이견 충분히 수렴을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 만큼 이를 국회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최근 두 달 동안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백가쟁명식으로 치열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각 당내에 이미 설치하고 있는 만큼 각 당의 TF를 통합한 연석회의가 중심이 되어 공무원,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를 기초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여 결론을 내리면 된다. 필요하다면 연석회의를 국회의장자문위원회 수준으로 격상시켜 논의의 장을 크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이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을 일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근심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회우들이 펴낸 신간

최병요 회우 ‘광자원소론’

최병요 회우(본보 편집위원)가 세계 최고의 과학논문이라고 자부하는 ‘광자원소론’을 책으로 펴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위원 출신인 최 회우가 교신저자로서 제1저자 이해청씨와 함께 물리학계의 오랜 암흑기를 깨운 역작이다. 저자는 성경의 창세기를 연구하다 우주의 시작이 빛의 창조로부터 비롯됐고 그 빛(있음)이 바로 현대물리학이 주장하는 빅뱅이었음을 논리적으로 풀어내 물리학계는 물론 신학계의 지대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우주의 기본물질이 광자(光子)라는 진리를 입증하고 있다. 인류가 2천년 넘게 찾아온 세상만물의 기본입자가 바로 광자라는 진리를 명명 백백하게 입증한다.

저자는 인류가 지금까지 광자가 원소라는 사실을 무심히 지나쳐왔다고 지적한다. 광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곱

질이 단단해서 핵폭탄을 맞아도 상처하나 나지 않으며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절대속도로 거울에 충돌해도 깨어지지 않는데 이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사실이라는 것이다. 광자는 직경이 10-19cm, 질량은 10-32g 이며 단위(1cm3)당 종량은 1025g(1,000만조톤)이라고 계산해냈다.

그러니까 원자가 지구만 하다면 광자는 밀가루만 하며 타구공만한 광자덩어리의 무게가 지구의 무게에 해당한다. 우주의 총 광자 수는 1085개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빛이 파동(복사)이 아니라 광자가 마치 총알처럼 회전하면서 절대속도로 진행되는 입자라는 진실을 밝혀내 뉴턴역학이 미시세계에서도 적용되는 만고의 진리임을 입증함으로써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론 등 모든 물리학 이론을 중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우리 우주의 모든 운동은 광자의 ‘과잉인력’에 흡수되어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제안은 만유인력에 대한 해답인 동시에 참된 우주론의 ‘키워드’가 될 것이며 또 중력은 단극이며 전기(電氣)는 전자의 이동이 아니라 참 파동이라는 주장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제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책은 결론으로서 우주와 세상만물의 탄생과정과 초 끈(=광자 끈)이론으로 대통일장을 제안한다. 광자가 원소

라야 빅뱅 상대성원리 블랙홀 등 우주의 수수께끼가 깨닫이 풀린다고 설명한다. 광자가 우주만물의 기본물질인 원소라는 진리가 확인되면 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뉴턴의 법칙처럼 인류문명의 영원한 금자탑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다.

제1장 광자원소론, 제2장 운동의 법칙, 제3장 빛과 열의 우주, 제4장 상대성 이론, 제5장 양자론, 제6장 물질의 탄생과 초 대통일장으로 구성되었다.

광자원소론은 절대 진리임을 논리적으로 풀어낸 보기 드문 역저다. [국회]

본회 회우 스마트폰 교육 받아

본회 회우 20여명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서울 여의도 외환은행빌딩 3층 국가경쟁전략연구원(원장 최종찬)회의실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다. 삼성그룹 측에서 강사를 지원해 실시된 이 교육에는 본회 회우 20여명이 참여했다.

防産非理 근절은 제도보완으로

최근 들어 우리 군의 국방획득 및 방산(防産)에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봇물터지듯이 드러나고 있다. 일례로 현역 장교들이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2·3급 군사기밀을 국내·외 방산업체에 유출한 사건, 육군의 K계열 무기체계 및 해군의 수상함·잠수함의 기술적 결함, 장비도입 관련 금품비리 및 방산업체 원가비리로 인한 국방예산 낭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군사기밀유출과 장비도입 관련 금품비리 및 원가비리 등의 문제들은 국가안보전략을 뒷받침하는 가장 성스러운 도구로서의 국방획득 및 방산정책이 단순히 우리 군의 소수 획득인력들 및 방산업체들의 자기이익 추구를 위한 불쌍사나운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이익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합리적 원칙보다는 그들 자신들만의 이익추구라는 관점에 의해 의사결정과 선택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하다보니, 국방획득 및 방산정책 목표, 그리고 안보상의 필요성이 왜곡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국방획득 및 방산 관련 비리 문제는 선진국들에서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위협에 대비한 대비태세 근간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그것은 대비태세의 근간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쳐 획득개혁 및 방산 비리 척결에 관련된 다양한 방안이 실행되었지만 각종 비리행위가 매번 발생하는 것을 보면 거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 같다.

현재 우리 군의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을 둘러싸고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옮겨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軍소요 관련 정보 충분히 제공

첫째, 군,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들 간 정보공유가 용이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무기체계 요구, 계획, 성능에 관한 내용들은 철저히 군사기밀로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정보가 획득과련 이해당사자들 간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할 경우, 방산업체들은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군피아를 동원한 정보수집(기술 및 비용)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과열되다보면 군사기밀 유출관련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에는, 서로 경쟁하는 방산업체들에게 군의 소요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다음, 비용·일정·성능에 기초한 입찰 제안서를 작성도록 하여 그것을 공정하게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자체 선발한 인력들을 군과 획득기관의 ‘통합사업팀’(IPT)에 합류시켜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팀원으로 같이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군·획득기관·방산업체들 간에 완벽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특별기고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
·국방부 전력소요 검증위원
·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 자문위원

軍-방위사업청-방산업체

정보 공유체제필요

획득업무담당 장교

轉役後 삶 보장

전문요원 양성

‘국방획득대학’ 설치필요

둘째, 우리 군의 소요 및 획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들의 전역 이후 취업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줘야 한다. 현재 방위사업청 IPT 소령·중령급 현역인력들의 경우 98%가 계급정년제로 조기전역하는 인력들로 늘 전역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른 좋은 취업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방산업체가 취업을 미끼로 기밀 정보를 요구할 경우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획득 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 자위대 간부가 전역할 때 국가 차원에서 방산업체가 아닌 다른 일반 공기업 등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인연금+@’ 개념을 도입, 전역 이후 몇 년 간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획득 및 방산 관련 비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획득인력들은 진급 및 취업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군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전역이후 생계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획득 및 방산관련 인력들의 비리를 근절시키기는 어렵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위 보유토록해야

셋째, 국방획득 및 방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90년 11월 일찌감치 국방획득인력개선법(DAWIA)을 제정해 무기체계 획득업무 전문분야를 11개로 설정, 민간 획득 전문가를 중점 양성해 오고 있다. 사업관리, 컴퓨터·시스템 획득, 시스템 계획연구·개발공학, 시험·평가공학, 획득군수, 계약·구매, 생산품 관리, 사업·비용 예측, 재무관리, 품질보증, 제조·생산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획득 전문요원들에게는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위보유가 의무화되며, 사업관리 교육과 훈련, 그리고 실무 경험을 쌓아야만 차후 보직과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방사청 획득인력 대부분이 획득 관련 기본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조 원대의 획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 빠른 시일 내에 국방대 산하에 미국 및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국방획득대학교를 설치, 획득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거나 민간 대학 등에 획득교육을 아웃소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방획득 및 방산정책의 목표(군사력 증강과 첨단기술 획득)는 결코 단시간 내에 달성될 수 없을뿐더러 희망적인 생각, 혹은 국방획득관리규정이나 의사결정절차를 단순히 변경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획득 및 방산인력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건전한 판단력을 기초로 한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 전쟁수행철학에 대한 사명과 비전(vision), 그리고 원칙준수에 토대를 둔 의사결정과 선택행위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회우들이 펴낸 신간

황원갑 회우 ‘한국사를 바꾼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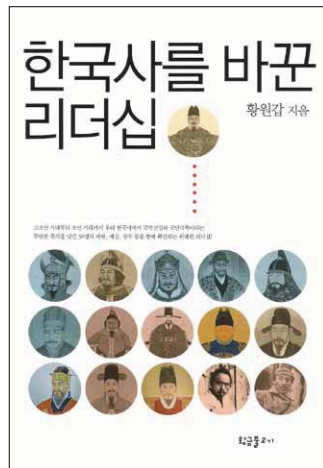
중견소설가이자 역사연구가인 황원갑 회우가 출중한 리더십으로 우리 한국사를 이끌어 온 제왕과 명재상, 명장 38명의 일대기를 엮은 한국사를 바꾼 리더십을 펴냈다.

그는 그 동안 철저한 사료 발굴과 정확한 고증, 속도감과 박진감 있는 문장으로 20여 권의 역사교양서를 펴낸 작가이다. 그는 이 열전을 쓰기 위해 30여 년간 끈질기게 사료를 조사 연구하고, 현장을 답사했다고 한다. 저자는 이렇게 단언한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국가와 민족에게 밝은 미래도 발전도 없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얻어야 한다.”

이미 21세기로 들어서서 해가 열네 차례나 바뀌기에 이르렀건만, 우리나라 사정이 지난 세기에 비해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나라 안팎의 사정이 갈수록 어지러운 실정이다. 바야흐로 지금 난국을 넘어 국난의 위기다. 위정자는 이 비상한 시기를 맞이하여 비상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마땅하다. 국가의 궁극적인 존재 의의는 무엇보다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에 있다. 국가지도자



에게는 이를 이를 탁월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는 21세기라는 새로운 격변의 시대,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역사를 앞장서 끌어온 제왕과 영웅호걸들의

인간상과 위업을 다시 한 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대를 가리켜 흔히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이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와 문화 등 다른 여러 분야도 마찬가지요,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관계 또한 그렇다.

오늘날 나라 안팎의 정세, 특히 또다시 빠진 경제적 위기에 비추어볼 때 비상한 리더십을 갖춘 탁월한 최고경영자였던 제왕과 영웅들의 존재가 더 한층 절실하다. 이들은 단순한 제왕이나 영웅의 차원을 넘어 참으로 위기관리 능력으로써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또한 백성들을 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한편, 군율은 엄하게 시행하고, 술선수범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그럼 점에서 이 책은 새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4]

朴대통령 리더십 새 진로 모색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놓고 여론은 두 갈래로 엇갈린다. ‘외치’는 잘하는데 ‘내치’에는 문제가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그것이다. 적어도 외교 안보분야에선 박 대통령이 높은 평점을 받아왔다.

그동안 지구촌이 좁다 하고 넘나들며 전개한 순방외교, 정상외교 등이 적지않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 아는 일로 새삼 재론할 필요는 없을 터이다. 그중 상징적인 성과 하나만 예로 들어보자. 영국을 국빈방문 때 영국왕실이 박 대통령에게 베푼 예우는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어서 국민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성대한 환영식이 끝나고 엘리자베스 여왕 내외와 왕실의 황금마차에 함께 타고 버킹엄궁으로 이동하는 장면은 너무도 인상적이었다.

그 위에 왕실에서 대 십자훈장을 걸어주었고, 캐머런 총리와는 별도로 정상회담을 갖는 등 더할 나위없는 방문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영국이 그 정도로 거창하게 대접한 외국 국가원수로는 박근혜 대통령 말고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있었을 뿐이라는 뒷얘기도 있다.

여기까지는 박근혜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치부된다. 그러면 국내정치(내치)에서 보여준 성적표에는 과연 어떤 점수가 매겨졌을까. 운 나쁘게도 그전까지는 잘 달렸던 ‘박근혜 호 열차’는 세월호 참사를 당하면서 뒤뚱거리기 시작했다. 집권초반에 돌출한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면서 정치생명까지 위협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더욱이 사고 수습과정에서 보인 우왕좌왕하는 뒤처리 모습은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실망으로 변질했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때 증명된다

세월호 참사가 한창 떠들썩했을 때 외신들은 박근혜 리더십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중에도 로이터 통신이 날카롭게 정곡을 찔렀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계심 많고 거리를 두는 리더십 스타일은 슬픔에 잠기고, 양극화(좌우로)된 국가를 치유하는 데는 역부족이다”라고...



지용우

- 본회 논설고문
-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 6·25참전 언론인회 부회장

外治 잘하는데

內治 문제 많다

상반된 평가

세월호 트라우마

빨리 벗어나

國難 극복해야

국가 지도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역량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나라가 평온할 때는 잘잘못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론분열 치유 조기 레임덕 막아야

흔히들 박근혜 대통령을 ‘한국의 대처’로 비유하는 이들이 많다. 엄밀히 따져서 닮은 점이 있다면 같은 여성 지도자라는 점 정도다. 거기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후광이 뒷받침 되었다. 솔직한 말로 대처와 박근혜는 리더십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같은 국란적인 사건이라도 등급이 있게 마련이다. 고질적이고도 만성화된 ‘영국병’을 일거에 고치고, 포클랜드전쟁을 총지휘해 승리로 이끈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와 세월호 참사 하나에 매달려 시종 고전한 박근혜 대통령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다.

지금 나라 안에는 세월호 사건 말고도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시급을 다투어야 할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우선 국민의 의식주와 직결된 먹고 사는 문제는 잠시도 한 눈을 팔수가 없는 초미의 과제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국론분열과 좌우 ‘양극화’ 현상도 하루속히 치유시켜야 할 국가적 숙제다. 국회에서 낮잠 자는 술한 민생법안도 빠른 시일 안에 빛을 보게 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세월호 참사의 가위에 눌려 앞뒤 생각 없이 덜컥 해체해버린 해경의 빈자리도 하루속히 메워야 한다. 지금 한 국정부의 해경해체에 용기백배해서 더욱 극성스럽게 몰려오는 중국어선단을 임기응변으로 급조한 특공대로 막는다거나 해난사고대책본부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깡대신 닭’ 식의 미봉책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시간이 없다. 정권이 중반도 맞기전에 벌써 레임덕현상의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집권기간에 허약해진 체질부터 개선하고 세월호 참사의 트라우마(정신적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재기의 활로를 모색할 때다. [국론]



원로언론인 전립선 무료검진과 함께 열린 의학강좌.

본회 회우등 원로 언론인 180여명 전립선 무료검진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회장 김은구)와 한국전립선관리협회(회장 권성원)는 11월 22일(토) 오전7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2층 강당에서 원로언론인을 대상으로 전립선 관련 건강강좌 및 무료진료(채혈, 초음파검사, 약 투여등)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언론인회 회원을 비롯,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

문, KBS, CBS 사우회 회원 등 182명이 진료를 받았다. 분당 차병원 비뇨기과 과장 박동수 교수의 ‘전립선 질환’, 고양시 명지병원장 김세철 교수의 ‘노인과 성’에 대한 강좌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삼성언론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실시됐다. [국론]

신임회우 환영합니다

김상준(金上俊)



1945년 4월 25일 생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74동 102호
010-9050-0085
〈경력〉 KBS입사(75), 아나운서 실장, 전주방송 총국장(2002), 동아방송예술대학교수, 동 대학 초빙교수, YTN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KBS시청자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장 3년 역임

문인수(文仁秀)



1944년 8월 19일 생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 3로 61 404-2003 (덕이동 퍼블리지 아파트)
010-3694-2224
〈경력〉 KBS입사(73), 제주편집담당차장, 제주 편집부장, 취재부장, 보도국장, KBS본사 사회 2부 데스크, 강릉방송국장(2000)

최종천(崔鍾千)



1952년 10월 27일 생
서울 관악구 성현로 80 관악드림타워 127동 504호
010-5281-4114
〈경력〉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졸업,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사회부기자(79), 사회부장, 정치사회담당부국장, 상임감사및 관리국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한국경제TV 상임고문(현)



오봉산을 배경으로 청평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은 지난 11월 18일 원로언론인을 위한 문화탐방 행사를 주관했다. 대한언론인회 회원을 초청한 사업이었다. 춘천 청평사, 김유정 문학촌, 국립춘천박물관을 둘러 보는 이 행사엔 98명이 참가했다.

오전 8시 프레스센터에서 출발한 3대의 관광버스가 청평사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수로로 소양댐 선착장에서 청평사 선착장까지 배로 10여분 걸리던 천년고찰 청평사는 이제 46번국도, 배후령터널(5.1km·국내 최장)의 개통으로 더욱 가까워졌다.

청평사는 고려 광종 24년(973)에 창건되어 백암선원이라 불렸으나 이자현(李資玄) 등이 중건하면서 사찰 이름을 달리하였고 그 후 조선 명종 11년(1557) 보우대사가 중건하면서 청평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청평사의 현존 건물로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보전, 삼성각, 회전문(廻轉門·보물 제164호), 서향원, 청평루, 적멸보궁, 해탈문, 큰방, 요사채 등이 있으며, 주요 문화재로는 강원도문화재자료 제 8호인 삼층석탑(공주탑)을 비롯하여 진락공부도(眞樂公浮屠), 환적당부도(幻寂堂浮屠) 및 고려정원(高麗庭園)이 있다.

신비스런 청평사 설화

대표소에서 청평사 입구까지 가는 길엔 아홉가지의 소리를 낸다는 구성폭포가 볼거리다. 구성폭포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아홉가지 폭포 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폭포는 춘천 서면 삼악산의 등선폭포, 남산면 문배마을의 구곡폭포와 함께 춘천의 3대폭포로 꼽힌다.

청평사로 오르다보면 거북모양의 바위가 보이고 평양공주가 청평사에서 불공을 드리기 위해 기거하던 굴이라는 공주 굴, 인어공주의 설화도 흥미를 끈다. 당나라 태종의 딸 평양공주를 사랑한 청년이 죽자 그 청년이 상사뱀으로 환생하여 공주의 몸에 붙어살았는데 이를 떨쳐버릴 공리를 하다 한국의 청평사에 와서 공주 굴에서 하룻밤을 자고 공주탕에서 몸을 씻자 상사뱀은 공주와 인연을 끊고 해탈했다고. 당나라 태종이 이를 기뻐하여 청평사를 새로 짓고 탑을 건립하니 믿거나 말거나 이때 세운 탑을 공주탑, 공주가 목욕한 곳을 공주탕, 상사뱀이 윤회를 벗어난 곳을 회전문이라 전한다.

약 두 시간 정도 청평사 경내를 둘러

大만족! 청평寺의 늦가을

한국언론진흥재단 '원로언론인 문화탐방'
98명 참가... '김유정 문학촌'등 둘러봐



김유정 생가 안마당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다.

선호도가 높다. 송어회를 먹고난 뒤의 매운탕 맛도 백미, 오랜만에 포식을 했다고 모두들 희희낙락이다.

김유정, 그의 문학세계를 보다

오후에 들른 김유정 문학촌. 김유정 생가에서 자원봉사로 나왔다는 해설사의 자세한 해설은 한 시대 김유정의 삶과 창작 배경이 시공을 초월해 가슴에 와 닿는다.

김유정의 집안은 천석지기 지주였고, 고향인 강원도 산골(춘천에서 한 이십여 리 가량)이었지만 서울에도 백여 칸 되는 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했으나 일곱 살 때 어머니를,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여읜 뒤로 집안을 관리하던 큰형의 방탕한 생활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 때 그는 마을의 주막집을 드나들며 집사와 같은 생활을 하고 들병이(남편이 있는 여인이 시골 주막으로 돌아다니며 술과 몸을 파는 것을 말한다)들과 어울리며 지낸 경험이 바로 김유정의 문학에서 드러난 작품들로 알려져 있다. 1937년 스물아홉나이에 가난과 실연과 병마로 얼룩진 생애를 마감한 김유정, 지금 그의 유품이 어는 것 하나 남아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해 준다.

호반 · 청림계곡 즐거운 나들이

유한준 (본보 편집위원·시인)

원로언론인 문화탐방 나들이길
오봉산 낙엽 골 즈려밟는 힘찬 발걸들,
주산 정기(精氣)에 석벽(石壁) 청송(靑松) 고운에
청평사 500년 주목인들 가는 세월 어찌 잊을
손가.
아! 젊은 날의 저널리스트 회상이여!

마음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커늘
공주 연모한 상사뱀 청동으로 굳어진
전설의 영지(影池) 돌아 선동교(仙洞橋) 건너
장수 샘에 갈증 죽이고 윤회를 넘어 해탈한
경망루(慶望樓)에 안저드니 모두 선경(仙境)이
여리!

문항(文香) 짙은 실례 이야기길
요절한 문객(文客) 김유정 문학촌 초가 띄리 집
그 뜰 안에서 칠팔구십대 무상(無常)함께 젖어

지난 긴 세월 되돌아보는 눈가에
아! 불굴의 필봉, 세월의 영롱함 가득하네.

호반의 정취 아롱진 국립춘천박물관
선사(先史) 이래 현대까지 장구한 세월 담은
인류 문화유산 찬란한 빛 가득한 공간
은은한 숲소리 고이 넘쳐흐르나니
아! 필설(筆畵)의 예지도 그 안에 함께 괴였는
가.

격동의 세월 굴곡의 역사
곡직(曲直)으로 밝혀 언론 반석 다져놓고
호반 청림계곡 찾은 즐거운 나들이길
세파(世波)에 서린 백발이 훈장보다 곱고야,
아! 별미 덕담에 기분 좋은 하루,
청홍적엽(靑紅赤葉)도 노객(老客)들 반겨주노
라!

입맛 돋운 송어회·닭갈비

서둘러 찾은 국립춘천박물관. 전시물이 다소 빈약한 감은 있으나 지은지 얼마 안 된(2002년 준공) 박물관치고는 제법 배울 거리가 많아 보인다.

서울로 출발하기 전 스태프 진은 춘천의 명소 학곡리 막국수 닭갈비 집으로 일행을 안내 했다. 닭 다리살, 양배추, 떡볶이 떡, 호박, 고추, 파가 어우러진 춘천 닭갈비와 막국수 한 그릇에 소주와 막걸리를 곁들이니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신다. 과격적으로 문화탐방행사를 마련해준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이사장과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며 깔끔하게 행사를 진행해준 정용재 차장을 비롯한 스태프 진의 노고도 고마운데 선물까지, 귀경길 차내는 감사의 박수로 가득 찼다.

여기 이날 하루의 정취를 현장감 있게 담아낸 유한진 편집위원의 시 한수를 소개하는 기쁨도 남다르다. [국문]

본 일행은 인근 부용가든에서 송어회 정식으로 오찬을 들며 즐거움을 만끽했

다. 선도 높은 송어회는 선분홍빛 색과 탱탱한 살로 식감이 좋아 식도락가들의

글: 정운중 상임이사
사진: 강두모 회우(전 국민일보 부국장)

‘신혼부부에 집 한 채’ 호된 못매

‘신혼부부에 집 한 채’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포럼의 슬로건이 무상복지 논란에 다시불을 지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으로 지자체들이 ‘복지 디폴트’를 외치며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한 복지 대란 속에서 11월13일 포럼이 저출산대책으로 발표한 것이다. 신문들은 ‘공짜로 신혼집 주겠다니... 수권 꿈꾸는 야당인가’ (중앙일보), ‘신혼부부 집 주겠다는 새정치연, 허경영식 공약 할 땐가’ (동아일보), ‘국민세금으로 신혼부부에게 집주겠다는 점입가경의 야당’ (한국경제)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은 “다소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공짜 집’ 구상과 다름없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새정치연합이 과연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정당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혹평했다. 국민일보는 “재원조달의 실현성 등은 물론 기존정책과의 중복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저출산은 주택 문제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임을 간과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대책이라면 포럼 이름도 달리 해야 했을 것이다.

동아는 “공공 임대주택 건설 물량은 연평균 10만 채 안팎인데 신혼부부들에게 해마다 10만 채씩 주는 일이 가능할지, 혹시 실현되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국가 재정은 거덜떠보지 않고 ‘퍼주기’ 식 복지에 매달린다면 17대 대선 때 ‘신혼부부에게 1억 원 제공’ 공약을 내걸었던 허경영 후보와 다른 게 뭐냐는 비아냥을 들을 것”이라고 썼다.

한국경제는 “무상시리즈 포퓰리즘 공약이 어느 것 하나 파탄나지 않은 것이 없이 실패한 판국에 반성은커녕 또 새로운 무상이라니. 그것도 100조원이나 든다는 사업을 마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놀라운 아이디어인 양 이벤트로 벌이는 야당을 어떻게 봐야 하나. 결혼도 대신해주고 인생도 공짜로 살아주겠다고 하지 않을는지”라고 맹공격했다. 여러 신문이 인기영합주의라고 나무랐다.

조선은 21일 ‘공짜 복지에 싸늘한 여론 보여 준 신혼부부 집 한 채 소동’ 사설에서 “정치인들은 복지를 공짜로 주는 것처럼 유권자들을 현혹해왔다. 세금을 이렇게 자기 선거운동에 갖다 쓰는 것은 유권자 매수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며 “무상 공약의 혼란이 이 수준의 시행착오에서 멈출 수 있다면 국가적으론 귀중한 깨달음이다”고 평가했다.

5~10년 뒤의 문제 지적소홀

2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은 반대 54%, 찬성 38%였다. 20대는 59% 찬성, 40대 이상은 60% 반대로 세대 간 갈등 조짐을 보였다. 다른 조사에선 ‘초중등 무상급식은 소득 상위 계층을 빼고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6%였다. 복지대란에 국민들은 증세 없이 복지도 없음을 안다. 무분별한 정책은 야당 신뢰도만

저하시킬 뿐이다.

반면 한겨레는 18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재원 조달 문제도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복지 의제를 들고 나온 것부터 사실 별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 토론의 물꼬를 열 수도 있는 주제다. 새누리당이 야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은 꼴불견이다.

새누리당은 공약인 ‘행복주택’ 정책 추진 상황이나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신문시평



김명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2층 단독주택은 결코 아니다. 신혼부부는 한해 25만 쌍, 교통 좋은 곳에 살아야 맞벌이도 가능하다.

행복주택 외면도 입지 탓이다. 신문들은 5~10년 뒤 임대주택을 떠나야 할 때 자녀까지 생긴 ‘구혼부부’들이 어디로 갈지 문제점 제시에 미흡했다. 보도자료에 없는 탓인가?

11월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

한의 인권 탄압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표결 참가 185개국 중 찬성 111, 반

을 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합의까지 거스르겠다면 맥락이 닿지 않는 논리로 인권과 핵문제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국제사회와 정면 대결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북한 당국은 이제 주권 존중이나 내정 불간섭 원칙 뒤에 숨어 인권 탄압을 지속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겨레는 “북한이 ‘최악의 인권침해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길은 그릇된 제도와 관행을 바뀌는 것뿐이다. 정치범수용소 폐쇄,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과 주민 감시 폐지, 이동의 자유 보장 및 탈북자 보호 등이 그 일부다”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체제 불안인 만큼 우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물을 뒀다. 인권은 인권문제로 풀어야 한다. 인권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지원운운으로 인권 탄압의 본질을 흐릴 게 아니다.

“국회는 역사의 죄인 되지 말라”

북한인권법에 대해 조선은 24일 ‘여야, 北인권법 합의 못 하면 북 협박에 굴복한 꼴 된다’ 사설에서 “북한 국방위는 23일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를 배격한다며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협박했다. 북한 권력이 자신들을 향한 전 세계의 인권 압박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냐, 아니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역설했다. 조선은 앞선 사설에서도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 결의 정식 의결 전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도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10년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부끄럽다. 북한 인권운동의 새 지평이 열린 지금, 북의 반인도 범죄에 침묵한다면 그들과 공범이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중국 러시아는 북을 감싸기에 앞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인권은 결코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는 한 나라의 내정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중·러 양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유엔이 북 인권탄압의 ICC제소를 권고하는 지경이 되도록 우리 정치권과 일부 신문들은 진영논리에 매몰돼 북한 인권의 진전을 재촉하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중 잣대를 든채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북한 독재체제가 인권 탄압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임을 깨달아야 한다. [4]

“퍼주기식 福祉는 안된다” 싸늘한 여론 유엔결의안 계기 북한인권법 강력촉구

주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그러나 20만 호를 목표로 한 행복주택은 입지선정 충돌 등 공약 실천이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다. 포퓰리즘 공약을 달지 말라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신문들은 땅값까지 겨우 1억원을 들여 전셋값이 2~3억원 하는 전세 광란의 수도권에서 어디에 무슨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부터 물어야 했다. 우윤근 새정치연 원내대표가 사진에서 들고 있는

대 19, 기권 55개국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신문들은 북한의 인권 존중,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의결, 중국 러시아의 인권 협력도 요구했다.

‘주권’이 인권탄압 면죄부 못돼

경향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따른 것이다.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배격한 북한이 핵심협

‘대한언론상’ 시상식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1월 4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14년 대한언론상(23회)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의 대한언론상은 육군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심층 보도한 KBS 정치외교부 윤진, 황현택 기자(취재보도부문)와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에게 돌아갔다. 사진 좌로부터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명예회장, 제재형 고문, 신우식 고문, KBS황현택기자 부부, 김은구 회장,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 이형균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심사위원장). [4]

보기도문 秀作 ‘죽음’ 3부작

우리의 TV에서는 순수 예술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순수 문학 프로그램은 자취를 감추었다.

흑백 TV시절, KBS는 <명작의 고향>이란 프로그램을 방영했었다. 강대영 PD가 연출하고 서울대 김윤식 교수가 해설자로 등장했던 <명작의 고향>은 우리 문학의 명작들이 태어난 산실과 작품 배경, 의미 등을 깊이 있게 짚어주었다. 방송 시간도 골든아워에 편성되어 많은 시청층을 갖고 있었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인들이 많이 다뤄졌으므로 학생들도 즐겨 보았다. 이밖에도 명작 소설을 극화한 드라마가 고정 편성되었다. 컬러 TV 초창기에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서는 시인들의 시낭송이 방송되었다. 야외에서 촬영된 시낭송은 아침을 격조 있고 신선하게 열어주었다. 그러나 그때보다 엄청나게 많은 채널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음악 채널 ARTE를 제외하고는 순수 예술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TV에 고정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

왜 순수 예술이 중요한가? 그것은 문화의 핵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 현상은 바로 이 순수 예술에서 변용되고 가지 쳐 나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 예술이 활발하게 창작될 때 사회 전반의 문화 현상이 힘을 받는다. 예술적 의미 부여도 순수 예술에 의해서이다. 이것은 시청률이라는 상업주의적 가치관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정신적 가치를 갖는다. 마치 토굴 속에서 용맹 정진하는 선승에 의해 불교가 힘을 받듯이, 깊은 수도원에 스스로를 가둔채 수행하는 수도승에 의해 기독교가 생명을 이어가듯이 순수 예술의 힘은 모든 예술 행위의 에너지원이 된다. 문화 선진국일수록 순수 예술의 힘이 강하다. 소치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러시아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세계적인 문호들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적 자존심을 한껏 과시했다. 그런 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이다.

일본의 NHK는 전통시 하이쿠를 다

루는 프로그램을 고정 편성하고 있다. 매주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하이쿠 선생이 나와 투고받은 작품을 놓고 지도한다.

매년 새해가 되면 천황이 하이쿠 작가들을 황거(皇居)에 초청해 하이쿠를 짓는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하이쿠는 일본의 국민 문학이 되었고, 오늘날은 서양인들도 그들의 언어로 짓는 세계 문학이 되었다. 하이쿠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끼친 방송의 역할이 실로 큰 것이다. 이런 것이 방송이 순수 예술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방송시평



유자효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특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다. 방송이 순수 예술 프로그램을 외면하면서 한국의 참된 국격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강남 스타일의 나라’ ‘대장금의 나라’로만 볼 뿐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순수 예술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TV에서는 고급 담론이 없다. 일부 종교 채널을 제외하고는 철학이나 종교 같은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인간의 깊이를 천착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새 TV라고 하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처럼 여겨지고 있다.

문제. EBS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제1부 ‘메멘토 모리’에서는 전 세계의 ‘죽음학’ 전문가들을 찾아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탐구했다. 여기에서 학자들은 ‘사후 세계가 있다’와 ‘그런 것은 없고, 죽음으로서 끝이다’라는 견해로 대별되었다.

2부 ‘근사 체험’에서는 사망으로 여겨졌다가 회생한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했다. 그들의 상당수는 긴 터널 같은 곳을 지나 빛을 보았으며 큰 기쁨이 있는 세계를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런 증언은 사후 세계를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단순히 두뇌 현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정신분석학적 접근, 뇌 의학적 접근을 시도한 많은 학자들이 산소 공급이 끊어진 상황에서 이런 환상을 보게 된다고 근거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3부 ‘카르페 디엠’에서는 사후 세계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삶은 소중한 것이며 현재를 즐겨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런 결론은 죽음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모차르트를 비롯한 인류의 스승이나 천재들은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했다. 우리 공통의 문제이면서도 언급하기조차 꺼려하는 문제를 TV 화면에서 담론화시켜 긴장감 있게 끌어간 보기 드문 수작이었다. 시청료가 전혀 아깝지 않은, 저런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TV에서 방영된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이었다.

<죽음> 3부작이 방송되던 첫날, 중국의 산수화가 이가염과 이소가 부자를 다룬 <미술기행>, <비행의 비밀, 깃털>, 그리고 <다큐프라임 데스>를 잇달아 시청하면서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은 듯한 행복감에 젖었다. 프로그램에 임하는 제작진의 진지한 자세와 노고에 새삼 경의를 표한다. 역시 EBS였다. 방송은 근본적으로 문화 매체다. [본문]

EBS의 수준 높은 기획 신선한 충격 순수예술·삶의 본질 다룬 프로 기대

내가 파리에서 일하고 있던 1980년 하반기에는 프랑스 공영 TV에서 독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밤 8시 뉴스가 끝나고 곧이어 방송되는 ‘아포스트로프(Apostrophe)’라는 프로그램에는 세계적인 작가들이 출연해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출연자들과 토론을 가졌다. 격조와 흥미를 함께 갖춘 이 프로그램은 높은 인기와 시청률을 구가하며 장수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의 국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역시 프랑스’라는 찬사가 터져나왔다. 방송이 국격을 높이는 것이다.

순수 예술은 나라의 자존심이다. 그런데 우리의 TV들은 순수 예술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는다. ‘한류’라고 하면 가요나 춤, TV 드라마 등을 떠올린

그런 가운데 11월 3일부터 5일까지 EBS에서 방영된 <죽음(Death)> 3부작은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생명을 타고난 존재는 동물이건 식물이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아니, 자연 현상, 우주 현상도 탄생과 죽음이 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별들도 태어나고 죽어간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도 절실한 화두이면서도 누구나 선뜻 입에 올리려 하지 않는다. 그만큼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차례가 되면 절망과 황망함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많은 경우 실재하는 현실이다. 종교나 철학, 예술에서 다루는 것으로 치부하고, 비방송적 소재인 것처럼 여겨졌던 <죽음>의

‘못다한 이야기’ 출판기념회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1월 4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 그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 제4집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은 퇴직 언론인들이 재직 중에 겪은 보람과 아쉬움 등 생생한 증언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이번 4집엔 본회 회우 30명이 집필자로 참여했다.(사진 집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본문]

본회 산악회 추계산행 성황 새 회장에 이상호 회우선출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지난 11월 18일 추계 정기산행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 자리한 드림산을 다녀왔다.

산행후엔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 3년 동안 산악회를 이끌어온 정운종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집행부 임원 개선에 들어가 이상호 본회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감사에는 최귀조 현 감사를 유임키로 했다. 이날 산행엔 최귀조 감사가 전세 버스를 제공했고 정운종 회장이 금일봉을 쾌척했다. [본문]



이상호 신임회장.

새 집행부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고 문 : 강진형 강한필 김영호 김은구 박 실 안종우 안평선 윤익한 이상우 이태영 임한순 조창화 지용우 최상목 홍원기 황대연

▲자문위원 : 권영국 김세경 김윤재 성낙요 신대근 이윤래

▲명예회장 : 정운종

▲회 장 : 이상호

▲감 사 : 최귀조

▲부 회 장 : 이우진 장 옥 정창기

▲총 무 : 나용경

▲산행대장 : 황귀근

대한언론인회에서는 2014년 한해를 보내면서 원로 선배회우들을 문안하며 근황을 취재했다. 현재 85세이상의 원로 회우는 모두 63명. 1918년생, 그러니까 97세 원로가 두분, 87세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88세가 11명, 85세가 10명순이다. 문안결과 원로들은 비교적 건강하셨고 현역시절의 기백이 그대로였다. 건강이 좋지않아 외출이 어렵다는 원로들도 정신만은 존경받을 만했다. 이 취재는 김은구 회장이 직접 전화로 통화하고 정리했다. <편집자>

먼저 金鎮燮 원로선배를 모셔본다. 1918년생인 金선배는 우리 대한언론인회의 가장 웃어른이다. 같은 1918년생인 林寅翕(임인흙)선배가 계신데 생일도 같은 3월이지만 金선배가 1일, 林선배가 20일이다.

11월23일(일요일) 오전10시(미국 현지시간 밤8시). 미국 조지아에 계시는 김진섭원로와 통화를 했다. 우선 건강문제. “나, 건강해! 지금 전화 받으면서 한잔 하고 있어. 여기서는 미국 술이 좋지. 소주는 비싸.” 이 한마디로 건강은 OK! 매일 3~4km씩 걷고 이메일로 국내신문을 들여다 보는게 일과 중 하나. 언론문제가 나오자 톤이 조금 높아진다. “요즘 신문들을 보면 사실을 사실대로 쓰지 못하는가봐. 기자들이 기본공부도 안하는지 마음에 안 들어요. 언론인회 선배들이 깨끗하게 후배들을 지도해야 되지 않겠소? 모두 노후의 壽만 생각지 말고 언론의 정도를 가르치도록 하세요.”

다음 대화자는 그 다음 큰 어른, 임인흙 원로선배. 대한일보 사회부장과 세계통신 편집국장을 지내셨던 임 원로선배는 얼마 전까지도 모임에 나와 노익장을 과시했는데 “요즘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엘 다니고 있다”고 한다. 아직 신문이 좋아 일간신문은 물론 경제신문과 국방일보까지도 구독을 한다는 것. 역시 바른 언론을 강조하는 임선배인데 그보다는 부인의 댓글이 뜻이었다. “그양반 정신력은 강한데 경제관념이 없어요. 재미도 없구요. 그래도 할수없이 웃으며 살아왔다”고 하신다.

이 두분의 큰어른 말고 아직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는 원로선배는 이명동(95) 윤임술(92) 조성국(91) 지갑종(88) 원로, 그리고 87세 동갑들인 김경래 윤주영 한영섭 원로들이 있고 원로 막내(85세)에 김준하 이세환 정광현 정재호 선배 등이 있다.

*이제 李命同 원로를 만나본다. 지난 8월 95세에 첫 사진작품전을 열어 9회 말 만루홈런을 날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 열정 그대로이다. 새벽4시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동네를 걷는게 건강법이다. “그런데 말야, 집사람 몸이 불편해져서 내가 뒷바라지하느라... 그래서 사진잡지 하던 것도 후배에게 다 넘겨줬어” 아쉬운 표정이지만 아직 의욕은 그대로였다.

*林學洙(94)원로. “요즘도 모임에 잘 나간다”는 큰 목소리의 원로이다. 계속 걷기운동도 한하는데 부인이 건강치 못해서 걱정이라. “내가 대한언론 광고 하나 해줄게” “선배님! 감사합니다.”

*임술년에 태어나서 이름도 임술인 尹壬述원로는 지금도 일경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후진들과의 모임을 많이 이끌고있다. 이 재단은 올해 언론상을 12월에 시상하는데 이 언론상

은 상 탈 기회가 많은 중앙언론인은 제외하고, 지역에서 일하는 신문기자와 방송인들에게 시상한다는 것이다. 요즘도 일주일에 3일은 수영장을 헤엄치는 노익장.

*일제에 항거한 학생운동을 인정받아 독립유공자로 애국지사 예우를 받고있는 趙誠國 원로는 노후의 마음이 넉넉하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병원에 가본일이 없다는 90객이다. 얼마전에는 부산에서 배타고 일본여행을 했고 지난주에는 거제도를 다녀왔다고했다. 매일아침 목욕탕 일과가 건강비법이라고.

*劉聖烈(91)원로의 일과도 대단하다. 매일 걷기로 건강을 다지며 도서관잡이 일과이다. 집필을 위한 자료수집과 정리인데 합동통신 경제부장과 주간한국, 월간재정 주간을 하며 쌓아온 경륜을 살려 경제대작을 만들어내겠다는 열정이다.

*閔 畿(90)원로. 부인의 병 간호로 정성을 다하던 閔원로까지 넘어져 다쳤다며 걱정이 많아진 근황이었다.

*한글학자인 鄭在道(90)원로의 의욕은 지금도 넘친다. “요즘 건강이 좀...” 이라지만 한글관계 잡지기고는 물론 한글학회의 잘못이라도 발견하면 당장 달려가 논리적인 호통으로 젊은 학자들의 진땀을 빼놓았다는 이야기는 흔하다.

*지난 9월 대한언론인회에 발전기금(1백만원)을 보내왔던 具本健(89)원로는 홀로생활에도 “아직 난 능력이있어 내생활 내가 다한다”는 자신감이다. 재작년 부인을 먼저 저세상으로 보내고 지금은 홀로 용인의 무지개너심홈에서 요양생활을 하는데 부족한게 없다는것이다. “대한언론이 잘 배달되어 내 친구가 되어주고있다”며 언론인회 칭찬을 아끼지않는다. 자녀 3남매가 모두 미국에 살고있는데 큰손자가 지금 제일기획에 와서 근무하고있어 가끔 할아버지를 찾아주는게 큰 기쁨이라고한다.

다음, 1927년생 원로회우 11명중 젊은시절 못지않은 활동을 하고있는 회우들...

*池甲鍾원로. 현재 UN참전국협회 회장으로 젊을적 못지않은 국제감각과 능력을 발휘한다. 지난 7월에는 정전협정61주년 기념식장에서 국민훈장무궁화장을 받았다. 이처럼 끊임없는 열정 탓인지 건강도 젊은이 못지않다. 매일 아침 9시 사무실에 출근. “요즘엔 참전국에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기로 토요일까지 일한다.”며 즐거워 했다.

*金潤德원로는 하루 하루시간이 너무 짧다고 했다. 매일아침 먹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며 일주일에 4일 구청 복지관에서 기타, 합창, 대체요법, 지압 등을 배우고 봉사활동을 하느라 공일이 없다는 것. 이런 생활이 건강요법. 상처 이후 홀로이면서도 “전기밥솥 운전은 잘하니까 걱정이 없다”는 것.

*朴在權원로와 池連興원로도 독신.

朴 선배는 2년 전 상처이후 이제까지 “혼자 다한다”고했고 걷기로 건강유지. 시력이 좋아 책을 많이 본다고. 池선배는 건강한 편이나 따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고 했다.

*일본통이라 자랑하는 郭贊浩원로는 ‘대한언론’ 회원동정란 단골 손님일 만큼 활동량이 많다. 집필도 쉬지 않아 최근에도 ‘한국경제 발전시대’를 출간했다.

*88세 동갑인 金龍洙원로와 朴永植원로는 부인의 건강이 좋지않아 “와이프를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하셨다. 두 원로선배 모두 긴 이야기가 필요없는 아내에대한 정성을 보였다.

원로회우가 18명으로 가장 많은 1928년생 선배들은 전체수만큼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한 여러분이다.

*尹靑榮원로의 동정부터. 11월한달, 매주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된(조선일보사우회)스마트폰교육 전과정을 개근했다. 첫시간, ‘홍화면 편집하기’에서 수료시간 ‘네이버 주소록, 구글 번역’까지 보조강사를 옆자리에 붙잡아 독차지하는 맹렬한 학생(?)이기도했다. 내년 봄에는 중국과 라오스에 가서 또다른 소재로 35년 사진작가로서의 작품을 구상. 尹원로의 또 다른 열정이 어떻게 타오를지 모를 일이다.

*기자30년-장로30년의 金景來원로. 기자일생을 일단 마감한뒤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 사무국장으로 시작한 종교인30년은 아직도 계속중인 원로이다. ‘유산 남기지않기 운동’대표의 일과. 1984년에 시작한 이 운동의 현재 회원은 1만1천여명. “소규모의 국민운동으로 키워졌다”며 보람과 긍지를 보인다.

*金貴濟원로는 또 다른 모습의 동정을 보여줬다. 최근 강남에 14층짜리 건물을 손수 지은 것. 더 긴 설명은 생략. 다만 빌딩회장의 내색은 일체없다. 종전대로 삼성동의 아파트에서 부인과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요즘 협착증이

언론인! 氣概

大韓言論人會 원로

전화인터뷰 정리 : 김은구



97세 김진섭 원로.



97세 임인흙 원로.



지난 11월 20일 원로언론인 문화탐방에 나선 원로

원로회우 (85세 이상)

계성일	02-303-0553	김준하	010-9010-0254	박재권	031-602-7170
고재봉	031-719-4631	김진섭(미국)		박정하	010-5225-9230
곽노형	02-971-4833	1-201-968-7938		서강화	02-359-2143
곽찬호	010-1781-7903	김 집	010-2018-7279	안현태	010-2268-8941
구본건	010-5645-6231	김천길(미국)		오정수	02-388-6155
김경래	011-252-3790	1-718-720-1835		오판룡	031-989-7304
김귀제	010-2047-6197	김 호	031-411-4759	우경식	010-6334-1352
김용구	031-208-9171	나필성	031-585-8254	유성렬	010-3170-2692
김용수	02-445-9688	민 기	02-2687-3411	유승택	031-309-1419
김원재	010-9755-1795	박영래	02-2218-5432	유일연	02-581-5666
김윤덕	010-3895-8205	박영식	010-3370-9338	윤임술	010-9098-9947
김정환	02-426-4352	박용윤	010-5221-5166	윤주영	02-783-7930

원로는 살아있다

원로회우 近況 明細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



스마트폰 교육을 받는 윤주영 원로.



원로들. 왼쪽부터 한영섭, 김윤덕, 김준하 회우.

있어 걷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근황.

*韓英燮원로. 조용하게 쉬임 없는 활동가이다. 지금도 본회 원로위원회 위원장과 6·25참전언론인회 감사. 그일 말고도 원로 방송인들의 모임인 방송동우회 회장. 원로 아나운서 강영숙 여사가 부인. 예지원 회장인데 요즘 무릎이 좀 아픈게 걱정일 뿐 만사형통의 가정이다. 런던에 살던 아들이 정부의 일을 맡아 귀국해있고 며느리와 손주들이 런던에 살아 “아들이 기러기가 됐다”며 웃는다.

*金 集원로. 실향민인 그는 담배를 끊은 이유까지도 빨갱이 기자들에 들어대는 반공기자.(대한언론 10월호15면 참조) 활터에서 다져진 건강으로 공기좋은 지방(양양)으로 이사해서 취미삼아 서울나들이를 했었는데 올해 부인이 세상을 떠난후 기운이 빠지신것 같다. 그래도 언론인회 일과 6·25참전언론인회 행사에는 꼭 참석.

*아직도 휘파람이라도 불듯 상쾌한 柳承澤원로. “적당한 걷기가 건강에 최고”라며 후배들에게 전하라는 선배이다. 일선기자시절의 호쾌했던 일화는 지금도 여유로운 마음을 이루는 바탕이라는 선배이다.

*사진기자로서 역사의 흐름을 술하게 기록해 놓았던 鄭範泰원로는 “요즘 거동이 좀 불편해지고 한쪽 눈이 나빠져 주춤대기는 하지만 나가서 많이 돌아다닌다”며 “지금도 사진은 찍는다”고 힘을 준다.

*대한일보 기자 후 평북일보 편집국장, 이북5도민회 사무총장으로 실향수복을 이루고자했던 桂成一원로. “시력이 약해져서 배달되는 대한언론을 집사람이 읽어주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고향에도 못 가보겠어” 그래도 매일 동네길 걷기로 건강을 다진다고했다.

*동아일보와 KBS에서 언론일생을 살아온 朴正夏원로. “홀아비가 된 후 막내딸이 살림을 도와준다”고했다. 필요할때는 외출을 한다면서 "언론인회

사무실에 한번 나갈게"라며 칭찬을 많이 해준다.

*걷기가 좀 불편할뿐 건강하다는 禹慶植원로는 부인도 건강하다고 덧붙인다. 캐나다에 사는 자녀들한테 가서 살다가 작년에 부인과 영구 귀국한 우선배는 역시 내 땅이 좋다는 설명이다. ‘대한언론’의 발전이 피부로 느껴진다는 과찬의 말도.

*현역시절 취재활동 폭이 컸던 崔元珪원로는 “컨디션은 괜찮고 집사람도 건강한 편인데 가끔 허리 아플 때가 있다”며 책을 많이 읽는 편이라고했다. “친구? 만날 사람이 자주 없어지는게 슬프다”는 허전함을 보인다.

*李培國원로. “나도 집사람도 건강하다. 집안일 돌보고 친구들 만나는 게 생활”이라고.

*吳判龍원로와 朱寧寬원로는 “요즘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는게 일”이라면서도 ‘대한언론’ 잘 보고 있다고 했다.

일등병 원로랄까. 1929년생.

*1억원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신문사진 인간애상’사업에 보람을 느끼며 내년 사업을 구상하는 朴容允원로. “그런데 내가 건강증이 심해 걱정이요. 그래서 대화할때는 꼭 기록을 하는데 나중에 기록한걸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단말이야.” 그 틈새를 부인이 잘 막아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항상 곁에서 행동했던 安顯泰원로가 병이 나 걱정이라는 李鍾潤원로. “이를 고쳐야되는데 뻥 이가 잘 아물지를 않아서 후속치료가 늦어진다. 하루 한끼면 되고 술은 아직도 술술”이라며 껄껄 웃는다.

원로 회우의 막내인 1930년생(85세) 선배들은 모두 건강과 활기가 넘친다.

*다만 그동안 많은 후진들의 존경을 받아온 趙庸中원로가 갑작스레 방광에 병이 생겨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사건이고 불행이다. 趙 원로는 관훈상 심사위원장으로 병상심사업무를 끝냈다고. 이러한 공식적인 일 말고도 개인적으로 언론과는 좀 거리가 있는 소재를 연구, 정리해서 머지않아 출판을 할 계획이었다.

*金準河원로는 6·25참전언론인회 고문. 6·25전쟁 참전 때의 교훈적인 회고는 후배들에 존경의 마음을 갖게한다. 부인도 가정도 모두 건강하다는 자신감이다. 역시 소리나지 않게 언론인회를 위한 일들을 처리해준다.

*정열적인 매력의 鄭在虎원로는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회의 부의장으로 지금도 주변에서 ‘청년’ 호칭이다. 소리없이 대한언론인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한다.

*李世煥원로는 항상 데시빌이 초과되는 발성이다.“나도 집사람도 다 건강하다. 그게 내 복 아니겠나. 평생 부부싸움 한번 안했어.” 아침 6시30분에 일어나 조깅 1시간. 이메일로 미국의 친척들과 친구들에 정을 실어보내는 것이 또한 주요 일과란다.

*李文弘원로는 변할 줄을 모르는 사람같다. 조선일보시절, 상공부차관보시절의 그 불같았던 성격이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다는 후배들의 말이다. 매일아침 걷기운동. 지금도 화~확 날듯 움직인다. 부인도 건강하시다.

*鄭光憲원로선배는 조선일보 일선기

자 은퇴 후 부임한 계열사(조광)사장을 18년간이나 계속한 성실과. 요즘도 고향선배인 김동길박사의 사업을 돕고있다. 그 鄭원로가 최근 이사를 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를 팔고 용인의 삼성노블카운티로 옮겼다. “마누라가 이젠 밥 짓기도 힘들다고해서...” 강한 평안도 사투리지만 그속에는 부인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뜻이 숨어있었다.

*한국일보 견습1기인 李淳紀원로도 부인과 사별직후에는 기력이 많이 처졌지만 지금은 회복. 모임에도 잘나가고. 아들집에서 함께 살고있다.

*金源載원로. 자신도 부인도 그리고 가정이 다 건강하다고. 젊은 후배들을 자주 만난다는 김원로이다.

*李丙天원로도 자신과 부인도 건강하다면서 “대한언론인회가 매달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발표. 즉, 무노동 무임금이 뭔지를 알게 하라”는 의견을 줬다.

*任洪彬원로. 문학사상 50년과 함께 건강하다. 지금도 집필에 방해 없으며 이제까지 200권의 책을 써냈다고. “열심히 일하는게 건강”이라는 자신감이라고(한국일보사우회보 참조)

지금까지의 문후 회우들은 건강하고 활동을 계속하는 분들이었지만 이제부터의 원로회우들은 거동이 좀 불편하거나 병환중이지만 대화에서는 놀랄만큼 힘이 담겨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해두어야겠다.

*李志雄(93)원로는 현재 재활병원에 입원중이어서 간호보조원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

*거동 불편으로 집안생활을 한다는 원로는 金定漢(92). 90세 동갑인 郭魯亨, 金 湖, 扈賢贊 선배, 88세의 吳正秀, 劉日演 선배, 87세 동갑인 高在琿, 羅必成, 鄭準謨, 崔日永 원로, 그리고 86세의 金容九 원로. 85세의 徐康和 선배는 특이하게 밤에는 못자고 낮에 잠을 자야한다고 했다.

이분들 원로 선배들은 전화를 직접 받으면서 비슷한 생활모습을 밝은 음성으로 반갑게 대해 주었다. 또, 부인의 건강을 감사해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신문, TV를 친구 삼는다고 했다. 이 분들 가운데 金容九 원로회우는 부인(성악가)과의 대화가 인상적이었다. 매일 아침, 저녁 요양원에 있는 남편 전화통에 노래를 불러주어 응답정도로 건강과 컨디션을 체크한다면서 “갓은 쇼를 다한다.”고 웃었다.

원로회우 여러분들의 안후를 전화로지만 물어 만나면서 처음 생각과 달리 정말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원로선배들이 아직 청춘이거나 노익장이었고 몸이 불편해서 집안생활을 하는 선배들도 아직 생각과 마음이 밝고 긍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후배들이 기회 있을때마다 특히 건강이 쾌차하지 못한 선배들에게 전화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너무나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느꼈기 때문이다.

후기: 원로회우 예순세분을 다찾아보려 했지만 김일택, 박영래 임기호 최무룡 원로선배와 미국에 계시는 김천길, 진철수 원로와는 통화가 되지않아 찾아뵙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게재 순서는 통화된 순서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 글에 결례된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

연락처 전화 (가나다순)

이명동	010-6275-4542	정광현	010-9986-9591	최원각	02-722-1995
이문호	02-544-9356	정범태	010-8399-2892	최일영	02-373-5152
이배국	031-244-0503	정재도	02-715-5905	한영섭	010-5245-7799
이병천	010-9001-5928	정재호	010-5896-7707	호현찬	031-715-6562
이세환	010-8860-9558	정준모	031-262-5280	전화불명 원로회우 명단	
이순기	011-391-8741	조성국	010-9073-3231		
이종윤	010-3220-0657	조용중	010-3726-2465	김일택(부산자택 전화불명)	
이지웅	02-428-1811	주영관	031-967-7353		
임기호	031-916-7652	지갑중	010-9110-5022	최무룡(전화불명)	
임인흡	031-613-9797	지연흥	010-3894-3135		
임학수	02-2020-2080	진철수(미국)			
임홍빈	010-9395-2768	1-301-434-1021			

다 들자면 백가지가 넘을 비타민, 미네랄, 서플먼트를 차례로 늘어놓으면 복잡해서 가능하기가 어려울 터이므로 내가 잘 골라서 여러 해 동안 복용함으로써 그 효능을 체험한바 있는 것들을 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물론 내가 영양학자도 아니요, 의사도 아니므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까 싶지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검색을 게을리 할 수 없으므로 많은 관련서적을 읽고 고르게 된 것이라 두찬(杜撰·전거가 확실치 못한 것)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첫째는 비타민A와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E다. 비타민 에이스(ACE)로 불리는 것이다. 비타민 에이스를 복용한지 5년쯤 된 것 같다. 흔히 ‘청소부 3인방’(Scavenger trio)로 불리는 비타민 에이스 3인방은 모두 만만찮은 항산화 물질(Anti-Oxidant)이다. 산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산화는 쉽게 말하면 녹스는 것을 일컫는다. 사람이 늙는 노화(老化)도 산화이므로 비타민 에이스는 노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비타민A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이미 비타민A로 되어있는 ‘레치놀’로 불리는,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는 비타민A와 섭취한 뒤 몸속에서 필요에 따라 비타민A로 변하는, ‘카로틴’으로 불리는 프로 비타민(Pro vitamin)A가 있다. 비타민A 전구체(前驅體)로 불리는 베타카로틴(Beta-Carotene)이 그것이다. 따라서 비타민 에이스의 첫머리를 차지하는 비타민A는 베타카로틴을 일컫는다. 비타민A는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미 비타민A로 되어있는 동물성식품인 비타민A는 과잉섭취 했을 경우 독성을 드러낼 수가 있지만 베타카로틴은 독성이 없기 때문이다. 베타카로틴은 암을 예방하고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감염(感染)과 싸우는 T세포(흉선세포)의 수를 늘어나게 해서 면역력을 높인다. 심장병의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인자(因子)이기도 하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야맹증(夜盲症)과 시력저하를 방지하고 갖가지 눈의 장애 치료를 돕는다. 호흡계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면역계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을 돕고 질병의 회복을 촉진시킨다. 성장을 돕고 튼튼한 뼈, 건강한 피부, 머리칼, 이빨, 잇몸을 만들며 폐기종(肺氣腫),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치료를 돕는다. 베타카로틴 결핍의 경우 안구건조증, 야맹증이 될 수 있다.

베타카로틴이 넉넉한 자연식품은 생선의 간유, 간, 당근, 짙은 녹색야채, 황색야채, 달걀, 우유, 유제품, 황색과일 등이다. 권장량은 성인 남자의 경우 10,000~15,000IU인데 나는 하루에 15mg(25,000IU) 1정(錠)을 섭취하고 있다. 하루에 34,000IU이상의 베타카로틴을 섭취했을 경우 독성을 나타낸다고 되어있다. 머리칼이 빠지고, 구토, 설사 증상을 드러낸다고 하나 25,000IU의 경우 문제는 전혀 없다. 1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14>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서플먼트(中)

주일의 식단(메뉴)에 푸집한 시금치, 당근, 고구마, 캔털루프 멜론이 들어있다면 베타카로틴 서플먼트는 섭취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비타민 에이스의 두 번째 등장은 비타민C다. 곧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이다.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수용성(水溶性)이며 강력한 항산화물질이다. 거의 모든 동물은 스스로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만 인간, 원숭이, 마모트는 만들어 낼 수 없으므로 식사로 만들 수밖에 없다.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에 주요한 구실을 하는데 콜라겐



권도홍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다용량 섭취가 어떤 질병을 고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루에 10g 이상 섭취했을 경우 설사, 잦은 소변, 피부에 발진(發疹)등 불유쾌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 양을 줄이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암 환자는 검사결과를 변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비타민C는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다량의 비타민C를 섭취할 경우 요(오줌)검사로 나타

혈관-심장질환 개선하는 비타민 에이스

은 몸의 조직세포, 잇몸, 핏줄, 뼈, 이빨의 성장과 수복(修復)에 중요한 물질이다. 철분의 흡수를 돕는데 계량단위는 mg이다. 스트레스 상황하에선 빨리 소비된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나 중년 이상의 사람은 비타민C가 더 필요한데 담배 한 개비가 25~100mg의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비타민C는 상처, 화상, 잇몸출혈을 고치고 요로(尿路)감염을 치료하는 약의 효과를 높이며 수술 후의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며 핏속의 콜레스테롤 치를 낮춘다. 많은 타입의 바이러스 및 세균감염을 예방하며 면역계의 힘을 증강한다. 발암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며 니트로소아민(발암물질)의 형성을 방해한다. 자연의 완화제(변비)로 작용하며 정맥중의 혈전(血栓)을 줄이며 감기를 예방하고 낮게 한다. 무기질의 흡수를 높이고 고혈압을 내리게 하고 괴혈병을 예방한다.

비타민C를 많이 지닌 자연식품은 감귤류, 녹색야채, 토마토, 캔털루프 멜론, 캐리폴라와 감자, 피망 등이다. 비타민C는 가장 광범위하게 섭취되고 있는 서플먼트다. 캡슐, 정제, 드롭스, 시럽, 분말등 거의 모든 형태로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가장 일반적인 하루 섭취량은 500mg에서 4g(4,000mg)까지인데 한국의 의사들 중엔 하루에 6g(6,000mg)까지 섭취하

나는 당의 수치가 정확성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하루에 750mg이상의 비타민C를 섭취할 경우, 마그네슘 서플먼트를 함께 섭취하라고 권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신장결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아침식사 때 비타민C 1,000mg 1정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칼슘(Calcium), 마그네슘(Magnesium), 아연(Zinc), 비타민D3가 든 서플먼트 1정을 복용하므로 뼈와 이빨을 튼튼하게 하고 신장결석을 방지하고 있다. 그 서플먼트 병엔 튼튼한 뼈와 이빨을 만드는 것을 도운다(Helps build strong bones and teeth.)고 되어있다. 늙으면 뼈와 이빨이 부실해지므로 예방책이 필요한 것이다. 검사결과 골밀도(骨密度)는 튼튼한 편이다.

세 번째 등장 비타민은 비타민E다. 기름에 녹는 지용성(脂溶性)이며 프리레디칼, 곧 모든 병에 관여하며 암 발증에도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몰아내는 전사(戰士)로 불린다. 또 세포막과 기타 지질(脂質)을 포함한 조직을 지키며 백내장을 예방하고 신체의 면역대응을 강화하며 많은 종류의 암을 방어하며 치명적인 심장발작의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인다.

비타민E의 본체는 토코페롤(Tocopherol)이다. 간장, 지방조직,

심장, 근육, 고환, 자궁, 혈액, 부신(副腎), 뇌하수체에 저장되어 있다. 옛날에는 무게로 계량(計量)되었으나 지금은 생물학적 활성(活性)에 기초한 국제단위(IU)로 나타낸다. 비타민E의 경우 1IU는 1mg과 비슷하다. 강력한 항산화물질이며 지방을 포함한 화합물의 산화를 막고 비타민A, 셀렌, 메치오닌, 비타민C의 산화를 방지하며 비타민A의 활성을 높인다.

미국의 저명한 영양학자 진 카파(Jean Caper)의 저서 ‘기적의 치유(Miracle Cures)’에 비타민C와 비타민E를 ‘새로운 심장약’으로 들고있다. 서두에 『당신이 입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값싸고, 가장 안전한 약이다. 그것에는 리스크가 없고, 섭취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생긴다.』고 적고 있다.

『중년이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맥의 혈관이 좁아지고 반(斑·얼룩무늬·혈관 벽의 움기)이 형성되어 부분적으로 막히게 된다. 나이들면 들수록 혈관 벽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게 된다. 심장발작을 경험하거나 혈전증, 뇌졸중, 협심증으로 가슴이 아프고 혈관의 바이패스 수술, 또는 심장이식 수술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사람들을 괴롭히는 동맥경화라는 진행성 질병에 대해 그것을 극복하는 보조수단인 약이 비타민C와 E라고 할 수 있다.』

진 카파는 동맥경화가 진행함으로써 혈관이 막힌 뒤에도 비타민 에이스 중의 두 가지 비타민이 아픈 사람들을 살린다는 놀라운 사실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두 가지 항산화 영양소가 동맥경화를 늦추고, 악질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고, 아울러 항염증(抗炎症)작용까지 발휘함으로써 인공합성제약보다 더 심장에 대하여 강력한 효력이 있음을 누누이 기록하고 있다.

두 항산화 영양소가 혈관과 심장에 대하여 영웅적인 개선효과를 나타낸 실험사례를 다 적자면 지면이 태부족이므로 비타민 에이스가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거듭 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5년동안 복용해 온 베타카로틴 15mg(25,000IU)과 비타민C 1,000mg, 비타민E 800IU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실험결과를 참고해서 결정한 것이다.

서플먼트(Supplement)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부록’ ‘보족(補足)’ ‘추가’ 등이다. 영양보조식품이란 뜻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Supplement’ 하면 영양보조식품이다. 일본에서도 그렇다.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암과 같은 생활습관병에 대해 발본적인 치료수단을 갖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사들의 시각도 같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의사도 있다. 그러나 식습관을 바로잡고 지속적인 운동과 더불어 잘 고른 서플먼트를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 병원에 가는 일 없이도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실증적인 경험칙으로서 단언할 수 있다. ☞

溫故知新

塞翁之馬와 轉禍爲福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은 〈논어〉에 나온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지난 것을 충분히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면 그로써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知新 可以爲師矣)’라고 했다. 오늘을 알기 위해서는 옛일을 알아야 하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겠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기 마련이다. 이것은 비단 인간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해당하는 공통적 숙명이다. 흔히 운명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개척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미 정해진 숙명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고, 별별 일을 다 겪게 된다.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가 하면, 즐겁고 기쁜 일도 생긴다. 또 한 곳은 일이 바뀌어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 새옹지마(塞翁之馬)란 이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무상하게 뒤바뀌는 것을 가리키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이란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고사성어로 천변만화하는 인생살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길흉화복 인간만사는 새옹지마

새옹지마란 고사성어의 출전은 중국 전한(前漢) 시대에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지은 ‘회남자’ ‘인간훈(人間訓)’ 편이다.

-대체로 화복(禍福)이 서로 나타남은 그 변화를 예측하지 못 한다. 국경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서 복술(卜術)에 능한 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말이 까닭도 없이 도망쳐 오랑캐 땅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와서 위로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복이 되지 않겠소?”라고 했다. 그 뒤 몇 달이 지나자 그 말이 오랑캐 땅의 준마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찾아가 축하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화가 되지 않겠소?”라고 했다.

그런데 그의 집에는 좋은 말이 많고, 그의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하여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가서 위로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복이 되지 않겠소?”라고 했다. 그 뒤 1년 만에 오랑캐가 대대적으로 변경을 침범했다. 그래서 장정들은 활을 들고 싸웠고, 변방 사람들로 죽은 자가 열에 아홉이나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부자가 모두 무사했다. 그러므로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데, 그 변화가 이를 데 없고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회남자’의 저자로 알려진 유안은 서기전 179년부터 서기전 122년까지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막내아들인 유장(劉長)의 장남이었다. 그에게는 많은 문객이 있었는데, 유안이 도가·유가·묵가·법가·병가 등 잡가(雜家)에 관심이 많기에 이들을 시켜 ‘회남자’를 저술토록 했다고 한다. ‘회남자’ 21편의 본래 이름은 ‘유씨지서’로서 중국 한나라 초기의 사상을 두루 담은 대표적 철학서로 평가받고 있다.

새옹지마의 고사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은 한 마디로 말해서 세상만사에 초연하라는 것이다. 오늘 즐거우면 내일 괴로울 수도 있고, 오늘 기쁜 일이 있으면 내일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앞날을 그 누가 예측하라. 인간의 미래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은 초로(草露), 곧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이 덧없는 존재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다고 입이 찢어지라 좋아할 것은 아니다. 그 돈이 돌고돌아 언제 어떻게 자신의 목을 조를 밧줄이 될지 모른다.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여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기고만장할 일도 아니다. 그 자리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낙마하여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대부분이 사기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들통이 나서 쇠고랑을 차는 경우가 흔하다. 또 검은 돈을 받아 챙긴 것이 탄로 나서 철창 속으로 들어간 정치인도 많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말을 하다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벼슬자리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노라 나서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또한 구화지문(口禍之門)이란 고사성어도 있으니 입은 재앙의 문이란 뜻이다. 공인이건 일반인이건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

전화위복과 합종연횡의 유래

전화위복도 새옹지마와 비슷한 교훈을 준다. 인간의 길흉화복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 일시적으로 화가 닥쳐도 절망하지 말라는 인생의 지혜를 일깨워 준다. 전화위복이란 고사성어는 그 출전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십팔사략’에 나오는 것으로 당 태종(唐太宗) 이세민(李世民)이 한 말이란 설이고, 또 하나는 사마천(史馬遷)의 ‘사기’ ‘열전’ 가운데 소진전(蘇秦傳)과 장의전(張儀傳)에 나온다. 그런데 학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사기’의 기록이 앞서고, 또 신빙성도 높다고 보고 있기에 필자도 이에 따라 ‘사기’ 설을 따른다.

소진은 장의와 더불어 고대 중국 춘추시대에 이은 전국시대의 유명한 세객(說客)으로서 이른바 합종연횡설(合從連衡說)로 잘 알려져 있다. 전화위복이란 고사성어는 이 합종연횡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합종연횡설의 유래부터 설명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이다.

소진과 장의는 본래 귀곡선생(鬼谷先生)이란 같은 스승 밑에서 함께 배운 동창생이었다. 귀곡선생은 낙양성 동남

쪽의 귀곡이란 계곡에 살면서 제자들에게 난세의 외교술과 지략 등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의 본명이 무엇인지, 출생지는 어디인지 하는 점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신비에 싸인 인물이다. 귀곡선생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가르쳐줄 것이 없으니 하산해라!”하는 말을 듣고 두 제자는 귀곡을 떠나 천하를 주유하며 유세에 나섰다. 그런데 먼저 출세한 사람은 소진이었다.

기원전 360년경. 당시 중국은 주(周) 왕실의 힘이 약해진 반면 여러 개로 갈라진 제후국이 각자 패권을 잡으려고 서로 다투던 전국시대였는데, 특히 이 가운데 진(秦)·제(齊)·초(楚)·위(魏)·연(燕)·한(韓)·조(趙) 등 일곱 나라가 강성한 세력을 자랑하여 이른바 ‘전국칠웅’이라고 불렸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가 뒷날 시황제(始皇帝)가 천하를 통일하여 중국 최초의 제국을 세운 진나라였다.

소진은 처음에 진나라를 찾아가 혜문왕에게 연횡책을 제시했으나 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등용되지 못 했다. 소진은 이에 다음으로는 연나라로 찾아가 이번에는 합종책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된다. 합종책은 6개 나라가 세로, 즉 남북으로 동맹관계를 맺어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는 정책이요, 연횡책은 6개 나라가 가로로, 즉 동서로 진나라와 우호적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이었다. 연횡이란 연횡이라고도 하는데, 횡(衡)은 저울을 가리키고, 연횡(연형)은 ‘저울을 잇는다’는 뜻으로 진나라와 나머지 여섯 나라가 저울대처럼 평평하게 동맹을 맺는다는 말이다.

연나라의 적극적 지지를 얻은 소진은 이번에는 조나라를 거쳐 한나라로 갔다. 거기에서 소진은 이런 유명한 말로 한나라 선혜왕을 설득했다. “닭의 머리가 될지연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마시오.” 선혜왕은 이 말에 솔깃하여, “내 앞으로 다시는 진나라를 섬기지 않겠소이다!”라고 했다. 소진은 이어서 나머지 4개 나라마저 느란한 연변으로 설득하여 마침내 합종책을 통한 6개국의 동맹을 성공시켰다. 이것이 기원전 334년의 일이었다.

한편 그동안 장의는 여러 나라를 찾아다니며 열심히 유세했으나 아무도 호응하지 않자 실의의 나날을 보내다가 소진이 합종책으로 성공하여 출세하고 부귀공명을 얻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장의는 조나라로 소진을 찾아갔는데 뜻밖에도 옛 동창생 소진에게 수모와 냉대만 당한 채 분노를 씹어 삼키며 그 나라를 떠나야만 했다. 절치부심한 장의는 한 상인의 도움으로 진나라에 갈 수 있었다. 진나라에 도착한 다음에야

상인은 이 모든 일이 소진의 계책에 따른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장의는 진나라 혜문왕에게 연횡책을 건의하였다. 전에 소진이 연횡책을 유세했을 때는 심드렁하게 대하던 혜문왕이 이번에는 생각이 바뀌었음인지 장의의 계책을 받아들이고 그의 능력과 재주를 인정하여 객경(客卿)으로 발탁했다. 이것이 기원전 328년이였다. 귀곡선생 문하에서 소진과 쌍벽을 이루었던 강력한 라이벌 장의도 마침내 출세를 했던 것이다. 장의의 연횡책이 받아들여지고, 6국간의 분쟁이 잇달아 일어남으로써 동맹관계는 깨어지고 소진의 합종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난세일수록 자중자에하라

그러면 전화위복이란 고사성어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는 장의가 한나라로 찾아가 양왕에게 소진의 합종책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전한다.

“한나라의 강토를 살펴보면 대체로 산이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나는 산물이 적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오랜 전쟁에 대비하여 많은 군량을 준비하기 힘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적은 탓에 군사 수도 적으니 진나라에 비하면 약소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나라에 대적하기보다는 차라리 섬기는 쪽이 훨씬 이로운 것입니다. 나라의 산물이 적고 인구도 적으니, 이야말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도가 아니겠습니까?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나라는 전에 소진의 합종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던 나라였으나 선혜왕이 죽고 그의 아들 양왕이 즉위한 뒤 진나라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었다. 소진의 유창한 언변에 이끌린 양왕은 마침내 진나라에 땅을 떼어 바치고 나라를 보전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전화위복이란 화가 바뀌어 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로서 한 번의 실패에 절망하여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뜻으로 쓰이는 고사성어다. 그런데, 복과재생(福過災生)이란 말도 있으니, 이는 복이 지나치면 되레 재앙을 부른다는 뜻이다. 이래저래 세상만사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다. 요즘같은 난세에는 그저 자중자애(自重自愛)하며,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요즈음 경박한 세대에 특히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보다 값지게 보내야 한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바람처럼 물결처럼 어느새 흘러가버린다. 근래 젊은 나이에 실의를 이기지 못해 귀중한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 참으로 가슴 아프다. 그렇게 값어치 없고 허망하게 죽으라고 하늘이 부모를 통해 생명을 준 것은 아니다.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힘으로 다시 벌떡 일어나 힘차게 살 공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분수에 맞게 생활하며 씹씹이를 줄여야 한다. 또 흥청망청 노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겠다. 나이 들었어도 인생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고전을 많이 읽는 것이 좋겠다. ㉞

살다 보면 이따금씩 불쾌한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다. 전화는 대면하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절을 더 깎듯이 지켜야 하는데, 자기 편에는 친근하다는 생각에서 그런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다. 나이가 아랫사람이라도 예의를 지켜 공손히 전화를 해야 함에도 위아래 모르고 제멋대로 떠드는 사람도 있으니 딱하다.

말은 그 사람의 교양수준을 나타낸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인간이 모여 사는 조직사회에서는 크거나 작거나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갈등과 불화는 대체로 말을 함부로 하는 데서 비롯된다.

결핍하면 막말을 하는 국회의원이 문제의 주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 어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자들을 국회의원에 앉혀주었는가. 지난 17일 국회예산조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날 무렵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책상을 ‘땡땡’ 쳤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X새끼야 너 깡패냐, 양아치냐?”라며 예산장이 막말전쟁으로 비화됐다.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 11년의 관록을 자처한다면 점잖게 “김의원, 책상을 치면 되겠느냐?”고 선배답게 한마디 했으면 될 것을 갖고 막말로 끝났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막말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막말을 거리낌없이 하는 대표주자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설훈(62) 의원은 어떤가.

지난 10월 17일 관광공사 상임감사 윤종승(자니윤·78)에게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지므로 쉬게하는 것이다. 79세면 은퇴해 쉴 나이이다.”고 말했다. 윤감사가 한국관광공사의 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췄는지는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이를 이유로 ‘판단력’, ‘쉴나이’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다. 요즘은 60, 70대는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설훈의원은 어떤가? 비서로서 모셨던 김대중 전 대

생활 칼럼

言行이 인격이다



박명근

·본회 회우
·전 MBC 부국장(속초지사장)

통령을 79세(실제 81세)까지 수행했다. “김 전 대통령이 나이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진 일을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는 노인들의 분노를 아는가

그는 지난 9월 12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 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하다”고 말해 국가원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다. 막말 상습범인 셈이다.

같은 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4년 “60대 이상 70대는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투표 안해도 괜찮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는 노인 폄훼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게 떠오른다.

최근에도 신경민 새정치연 최고위원은 NLL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향해 ‘미친X’라고 욕을 했다.

한편 새정치연 전신인 민주당의 홍의표 원내대변인이 7월 1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비유하고, ‘그 후손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유권자 과반수 투표(51.6%)로 탄생한 현직 대통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 홍 대변인은 “귀신 귀, 태아 태(鬼胎)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라며 “만주국에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가 있다”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는 역대 대통령 지지율 순위에서 압도적 1위를 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그 후손이라는

이유로 이런 막말을 듣게된 것은 ‘연좌제’가 아닌가.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반영한다. 홍대변인의 인격과 수준은 그야말로 수준이하라는 것이 들끓었다.

또 그의 언동의 수준은 바로 그 당의 당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 의원은 지난 2012년 8월 ‘그녀’라는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했는데 ‘그녀’의 줄임말이었다고 변명했다가 더 큰 반발을 샀다. 임수경, 장하나 의원 외에도 막말로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아 국민에게 해명과 변명을 하려다 곤욕을 치른 인사도 있었다. 이같은 막말이 계속 이어지는 현실에 걱정이 앞서 고사성어를 알아보았다.

구화지문(口禍之門)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입은 곧 재앙의 문과 같으니 항상 말을 조심하라는 경구(警句)다. 우리 속담에도 말을 줄이고 말을 조심하라는 말이 많다. 이를테면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 ‘말로써 배를 채우지 못한다’, ‘말 많은 사람은 무능하다’, ‘말 많은 집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말 많은 집 장맛은 쓰다’, ‘말하지 않는 것이 득이다’, ‘말에도 값이 있다’, ‘말은 반만 하고 배는 8부만 채우겠다’, ‘말은 할 탓이요 길은 갈 탓이다’, ‘말은 부처 같고 마음은 뱀같다’, ‘말은 꿀 같고 심보는 칼 같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 ‘말은 할수록 늘고 되질은 할수록 준다’, ‘말이 달콤하면 진실은 적다’, ‘말이 미우면 줄 것도 안 준

다’, ‘말이 씨가 된다’, ‘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도 잘한다’, ‘말 잘하는 아들 낳으랬다’, ‘말이 아니면 대답도 말됐다’ 등등 일일이 다 소개할 수도 없이 많다. 반면, 말을 아끼되 잘해야 한다는 뜻의 속담들도 있다. 예를 들면 ‘말로써 천냥 빚을 갚는다’, ‘말만 잘하면 거저도 준다’, ‘말이 보증수표다’, ‘말을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 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 등등...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옆질러진 물과 같아서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와 직업을 가릴 것 없이 사람은 누구나 말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말이 많고 말로서 말썽을 일으키기 잘하는 사람일수록 말수를 줄여야 한다.

신의를 근본은 진실하고 성실한 언행 언동에서 비롯된다. 신중한 언행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는다고 해서 모두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해도 좋은가. 혹시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슬기로운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잘 모르는 상대방은 물론, 직장에서 아랫사람이나 가까운 가족과 친척, 친구 사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것이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최소한의 도리요 예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란 자칫 잘못 나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역전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에 ‘입은 재앙의 문’이란 고사성어가 생겨난 것이다.

구화지문과 비슷한 뜻의 구시상인부(口是傷人斧)란 고사성어도 있는데,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와 같다’는 뜻이다. 누구나 언행에 신중을 기하여 자신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

이번 대학입학 수능일을 앞두고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 영하를 기록하더니 이튿날은 일부 지방에 눈발이 날리기도 했다. 날씨가 점차 추워지면 노인들의 눈길이나 빙판길 낙상사고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낙상사고는 심한 경우 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25% 정도는 매년 한 두번 정도는 넘어진다는 통계가 있다. 문제는 넘어져 골절사고가 일어나면 심각하다. 노인의 경우 골절상을 당한 후 1년 내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노인 낙상의 원인

노화로 인해 신체를 바른 자세로 유지하는 근력이 떨어지고 비뚤어진 신체를 바로잡는 반사 작용이 느려진다. 더욱이 보행능력 장애, 균형감각 저하, 인지능력 장애, 하체 부실 등도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노인 낙상은 낙상으로 인한 사망 이외에도 중증의 손상으로 인해 삶의 질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낙상으로 병원을 찾는 노인의 20~30%는 타박상, 엉덩이뼈 골절 또는 낙상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고생한

눈길 - 빙판길 落傷조심



눈길이나 빙판길에선 낙상방지 용품을 착용하는 것도 좋다.

다. 노인에서 외상성 뇌손상의 가장 많은 원인이 낙상이며, 또한 낙상을 경험한 많은 노인들이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의 운동범위가 줄어들기도 한다. 낙상은 노인 외상의 가장 큰 문제며 노인층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

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낙상사고 예방법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면 엉덩이나 척추 손목 등이 쉽게 부러지고 회복이 어려워 심한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도 있다. 이처럼 노인들의 낙상사고는 연쇄적으로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노년층은 골절 뒤 회복 속도도 더디다. 그래서 겨울철 눈길이나 빙판길 낙상사고 예방법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야 한다.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 옷을 두 겹씩 입어 민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낙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민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굽이 낮은 신발을 신거나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은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장갑을 착용해 보온성과 함께 바닥에 미끄러졌을 경우 손을 짚을 수 있도록 하며 손을 바지주머니에서 빼고 걸어야 한다. 그리고 근력운동으로 다리의 힘을 기르는 것도 하나의 낙상사고 예방법이다. 예방을 위해선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은 신발을 신고, 비탈길에선 난간이나 손잡이를 꼭 잡아야한다. 특히 지하철 계단이나 건물 계단에서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도록 한다.

살며 생각하며

老後無策의 反轉



신동호

·본회 원로회우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주필·부사장
·전 스포츠조선 사장

올 해 정월 초하룻날, 온 직계 식구가 모여 차례를 치르고 난 후, 가장인 내가 여느 해와는 다른 새해의 교서를 발표했다. 실은 황혼열차의 여객전무겸 운전사인 내가 종착역 직전 역을 출발하면서 안내방송을 했다고 표현함이 맞다. 나는 31세에 결혼해 올 해로 꼭 반세기가 돼서 명실공히 8학년 1반인 후기 고령자사회군의 일원으로서 소회를 밝힐 만했다고 여겼다. 내용은 지극히 간단명료했다. 먼 앞날을 예측해서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나의 무능으로 너희들에게까지 심려를 끼칠까 봐 염려스러워 공여지책이지만 오늘 묘책을 짜냈다고 밝혔다. 스스로 자구책을 발표하며 옛 일이 떠올랐다. 어느 대통령의 장인이 대한노인회 회장이 되면서 공항면세점 임차권을 따냈다고 비판의 여론이 일자, 그는 노후대책으로 장만했다고 해명했다. 공인이 사리를 앞서 챙긴 것이다.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 중에서 가장 크고 중한 것은 이처럼 오래 살줄 몰랐다는 사실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65세에 가셨고, 큰 아버지와 큰 사촌형 그리고 친형은 환갑 이전에 세상을 떠셨다. 늦게 세상에 나온 자가 오래 산다는 것은 건강관리와 의료수준이 세월이 갈수록 발전된 증좌라 하겠다. 그래서 내가 65세를 넘어 섰을 때, 조상애의 예의적 면피를 다했다고만 기뻐했다.

그러나 장수가게가 아니고 술고래인 가통과 유전자를 이어 받았지만, 7학년까지는 진급하겠거니 기대했고 인생 고래희(古來稀)의 고개를 거뜬히 넘어 희수(喜壽)와 산수(傘壽)를 지나 망구(望九)의 전망대에 올라섰다. 아무런 준비나 할 일도 없이 너무 오래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부끄럽고 고민스러워하던 차에 집사람을 따라 교회에 나가 성경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왜 괴로운가 하면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층 많기로 세계 으뜸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핵심에 나도 끼여 있을 것이고 젊은이들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이력서엔 앞 칸이 없고, 꼭 차게 뒤 칸의 과거사뿐인데 거의가 나의 선택이었으므로 이제 와서 되돌리고 싶다고 크게 후회할 것은 하나도 없고 지난 세월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다만 재테크로 불리는 이재와 노후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다. 가계의 어려움을 모르는 유소년기를 지냈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는 전쟁이라는 국난기 때여서 나만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겪어서인지 욕심을 참으며 살아가는 슬기에 익숙했다. 때문에 도전적이거나 행동이 앞서는 진

취적 기상이 뛰어나지 못했고, 출세나 치부에 별로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로서 나 자신을 위해 남에게 부탁하거나 도움을 바라지않았다. 직업이나 직장의 선택도 내가 했고 41년을 정년퇴직할 때까지 한 자리에서 보냈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직업을 지망했고 회사의 오너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를 빼고는 월급쟁이가 오를 수 있는 영광된 자리를 두루 겪었다. 소비자의 선택과 사랑에 따라 영고 성쇠가 가름되는 중소기업의 신문사지만 제4부라 일권을 만큼의 위세와 보람이 대단해서 출퇴근시간이나 밤낮이 없는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도취에 빠져 저녁을 가족과 함께 하거나 주말에 아이들과 놀아 주는 일이 거의 없던 불량 가장이었다.

집안의 살림 꾸리기는 아내의 몫이었다. 나는 아내가 모아놓은 돈을 몇 번 가로채서 완전 탕진했다. 사업 또는 부동산 투자나, 주식 또는 금융자산 운용 그 어느 것도 재미를 보지 못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24번 집을 옮겼다. 65년 갈현동 12평 국민주택의 주인이 된 것은 생애 최초의 투자성공이고 기쁨이었으나 마지막이기도 했다. 84년 친구가 당첨한 개포동 1차 현대아파트를 양보해주어 아파트로 옮겼다. 생활하기는 편했으나 주민들끼리 출입문 이전 문제로 소송과 데모사태도 벌어지고, 지하주차장이 없어 매일 밤이면 아귀다툼의 주차전쟁이 벌어져, 이사가고 싶어졌다.

때마침 친구인 건설회사 회장이 방배동 효령로 큰길가에 10가구의 공동주택을 지었다고 해서 93년 초겨울에 이사했다. 개포동 집은 3천만 원에 사서 10년 만에 5억 받고 팔았는데 4억을 더 보태느라 골프장 회원권 2개를 팔고도 모자라 집사람 찜짓돈이 몽땅 털렸다. 그런데 불과 5년이 못돼서 강남의 단지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학군이 좋은 개포동 아파트가 20억 넘게 거래되어 우리 내외의 배 아픔이 오래 갔다. 재수 없는 놈은 앞서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내가 그 꼴이다. 아무튼 이 집에서 세 자녀를 모두 결혼시켜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 남향에 햇볕 잘 들고, 뒤는 숲이 우거진 공원이어서 새소리가 들린다.

21세기 들어서 6년 동안 대학 강단에 섰다. 교수 대접 받으며 감사금 급여를 받았지만 박사 학위 가진 30대 가장의 강사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는 2건의 보

도를 접한 후엔 염치없이 눌러 앉아있기 민망하고 가르칠 능력도 모자란다고 느껴 자진 사퇴했다.

그 후로 수입 한 푼 없는 완전 백수가 됐다. 큰 기업의 사외 이사나 고문 등으로 초빙되는 후기 고령 인사들이나 연금을 받는 고위공직자와 장군들을 보면 멀리서 부러워할 뿐이다. 오로지 위아래가 없는 동창생끼리 만났을 때의 화제는 부부가 40년간의 교육자로 퇴직 연금을 매월 1천만 원 가까이 받아 수시로 해외여행 간다는 과장성 유언비어가 최고 토픽이다. 요즘 연금개혁이 정치와 사회의 핫이슈로 떠들썩한데 나라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변혁은 불가피할듯 싶다.

나의 경우, 퇴직금은 10년 간격으로 두 번에 나눠 받아 아파트 옮길 때, 이 사비용과 자녀들 혼사자금으로 쓰여져 흔적이 묘연하고, 국민 연금은 중간에 해약한 탓으로 매월 50만원이 못 되는데 건강보험에 충당된다.

10년 전 93세로 작고하신 계모가 10년만기 파워연금보험의 일부를 피보험수혜자로 내게 남겨주시어 잔여 6년의 연금혜택을 입었다. 그 때의 보험회사 전담설계사였던 K씨가 내게 종신연금 보험에 들라고 끈질기게 졸라 그럴 능력이 없다고 했더니, 지금 사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신청하면 주택금융회사에서 준다고 가르쳐 주었다. 지난 해 세모에 우리 내외가 역삼동에 있는 남부지사를 찾아가서 상세한 안내를 받았다. 시가 9억이 넘는 주택은 신청자격이 없는데 감정가격이 8억5천만원으로 턱걸이 합격을 했다. 근저당 설정계약과 은행 수속을 마치고 회사에서 우리

집으로 실사를 하고 나서 바로 정식 계약이 이뤄졌다.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친절해서 문턱 낮은 금융기관임에 놀랐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부부 중에 누구라도 마지막 살아 있을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320만원)을 지급한다. 어머니 연금이 끊어진 이후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게 됐다. K씨에게 감사의 뜻으로 적금보험을 들어 준것은 필수였다.

나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따라서 너희들에게 돌아갈 유산은 우리가 오래 살수록 없거나 줄어드는 것임을 미리 알렸다. 불현듯 41년 전 아버지의 유일한 실명재산이었던 백색전화의 상속포기각서를 썼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손자들에게 용돈을 마음껏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던 모습도 생각나서 새삼 부자유친의 애뜻한 정감에 젖었다.

자식들의 속내까지야 알 수 없었지만, 모두 동의해주었고 떡국을 함께 들며 도소주를 나눴다. 내가 집안 일로 성취감을 맛 본 첫 일이었고 가화만사성의 첫 단추를 정초에 끼었다는 흔쾌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말끝에 새 공약을 덧붙였다. 건강상 10년 더 살기는 어려울 듯싶어 너희들 환갑잔치를 앞당겨 해주겠다고. 바로 보름 후에 그리고 2월초에 사위의 50세 생일을 축하해주는 성대하고 흐뭇한 가족연회를 베풀었다. 지금까지 나의 점괘나 사주풀이 중 최장수 예측연령이 85세였고, 요즘은 종합병원을 전과 수학하듯 다니기가 일과다. 당뇨 병력이 43년째로 인슐린 주사를 애용한지 30년이 넘었다. 하루 두 번 50단위를 맞는다. 12년 초부터 지난 2년 반 동안 급성폐렴으로 2회, 간암종 제거시술로 5회 입원 시술했고 아직도 집행과 선고 유예기간이 3년여 남았다. 내가 서두르는 이유다.

늙을수록 조심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글들이 인터넷이나 인쇄매체에 자주 오른다. 그래 나도 옷 깨끗이 입고 돈도 잘 쓰고 남을 즐겁게 받들어 모셔 기쁨을 함께 나누며 건강하게 살다 가자고 홀로 다짐한다. 친구들에게도 나의 변화를 널리 소개하고 있다. 대기만성(大器晩成)이라는 사자성어를 나는 작은 그릇이 늦게라도 깨닫는 만각이면 큰 그릇 못지않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는 새숙어 소기만각(小器晩覺)을 만든 셈이라고 자위한다. 그러나 청소나 관리가 힘든 큰 집에서 두 늙은이가 외롭지 않게 여생을 충실하고 보람 있는 프로그램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숙제로 남는다. 마감 질을 잘 해보자는 게 종생의 목표다. [\[4\]](#)

16면에서 이어집니다.

낙상 응급처치방법

낙상으로 인해 골절이 된 경우는 다친 부위를 딱딱한 부목으로 고정시키고 119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만약 출혈이 있을 경우 상처 부위를 깨끗한 천으로 감싼 뒤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지혈을 시킨다.

낙상 방지 용품의 착용

등산길에서 눈이 오거나 빙판길을 만

나면 여간 조심을 안하면 미끄러져 다칠수 있다. 그래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아이젠’을 신발에 착용하게 되는데 산길에서나 도심에서나 이 미끄러움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미끄럼 방지용품을 착용하면 좋을 것이다. 값도 싸고 착용하기에 아주 편해서 손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 구입하려면 인터넷판매나 쇼핑사이트에 들어가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용품을 볼 수 있다. 값도 비교적 싸 2

만원 내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먼저 구두에 덧신을 신듯이 앞뒤로 끼어신는 타입인데 바닥을보면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다. 또 신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 ‘슬라이드락’을 접착제로 부착하거나 스티커형이 있는데 스티커형은 간단하게 부착할 수는 있으나 잘 떨어져 눈이 올 때만 비상용으로 사용하기 좋고 접착제로 부착하는 슬라이드락은 견고해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퀵젠’ 이라고 신발 바닥에 뿌리는 아이젠인데 스프레이 형이다.

한 통 있으면 여성은 30회, 남성은 2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끝으로 집에서 구멍이 나서 못 쓰게된 고무장갑이 있으면 돌기가 있는 부분을 구두바닥 모양(앞,뒤)으로 잘라내서 접착제로 부착하는 방법도 있다.

부디 이 한겨울 넘어지거나 눈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지내기 바란다. [\[4\]](#)

이보길 회원사업위원장·건강포럼간사

생활 隨想

이제사 千字文을 외우고

다음의 네 한자를 읽을 수 있는 분은 한자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휘파람불 嘯, 얹어맬 縻, 이지러질 虧, 가릴 翳”

나는 어린 시절 천자문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늘 천자문에는 어떤 글이 쓰여 있을까 하고 궁금했다. 나는 지난 해 11월 우연한 기회에 교보문고에서 잘 편집된 ‘천자문’ 한 권을 구입했다. 이것을 한 번 외워보면 어떨까. 과연 칠순을 넘긴 내가 외울 수 있을까. 한번 도전해 보자.

불교 교리의 핵심이 담긴 반야심경(般若心經)을 외우는 데는 그리 긴 기간이 걸리지 않았다. 시간상으로 얼마나 소요됐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500번을 보고 읽으니 머릿속에 확 들어왔다.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우듯.

‘천자문을 외우면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시인 미당 선생이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세계의 최고 높은 산 이름을 순서대로 외웠듯이. 천자문은 독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梁)나라 주홍사가 지은 책이다. 넉자로 된 시(詩) 250구를 만들어 1,000자를 모은 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용한자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글자도 적지 않다. 그 뜻은 중국의 고사나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많다. 옛날 서당 선생님이 겨우 글자 1,000자를 위해 따로 존재했던 분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뜻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해 버릴까.

정말 도전은 만만치 않았다. 다시 책방을 찾았다. 김성동이라는 분이 쓴 천자문 2종류를 더 구매했다. 하나는 글자를 쓰는 방법과 뜻풀이, 간단한 해



김윤재

·본회 회우
·전 세계일보 수석 논설위원

설이 붙어 있었다. 다른 한 권은 뜻풀이와 저자의 수필이 담긴 책이었다. 그의 수필에는 순수 우리말을 많이 쓰고 있어서 꽤 글 읽는 재미를 느끼게 했다. 저자는 한자를 진서(眞書)라고 하는데 ‘우리글’이라는 주장을 펴서 흥미로웠다. 천자문을 순서대로 외운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들었다. 매일 넉자씩 외우고, 잊어버리고, 또 외

웠다. 외우고 잊어버리기를 반복하였더니 조금씩 외우는 진도가 나갔다. 지난 봄 4개월 동안 기초치방자치단체 기초의원후보로 출마하는 바람에 공부를 거의 못했다. 4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던 셈이다.

그 후 다시 외우고 잊어버리는 과정을 반복하며 천자문 읽기를 계속했다. 나도 아직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은연 중에 생겨났다. 공부하는 주로 아침에 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1시간 동안 외우기를 반복했다.

“하늘 天, 땅 地, 검을 玄, 누를 黃으로부터 시작하여 어찌 焉, 어조사 哉, 어조사 乎, 이끼 也” 하고 마지막까지 외웠다. 기간으로는 꼬박 8개월이 걸린 셈이다. 이제 나도 남과 다른 무엇을 하나 내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됐다.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스럽다.

이제 천자문을 외우고 나니 슬그머니 한자공부를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흔히 ‘병신보감’이라고 농담하는 ‘명심보감’을 읽기 시작했다. 외우기를 시작해보니 예상 외로 칠순이 넘는 사람도 외우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맨 앞의 한자는 순서대로 “소, 미, 휴, 예”라고 읽는다. ㉞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㉔

비타민 - 식품보조제 약과 함께 복용 위험

미국식품의약청(FDA)은 최근 비타민 같은 영양보충제나 식품보조제(dietary supplement)를 약품(藥品)과 함께 복용하면 약물의 흡수와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FDA 모제로스

키(Robert Mozerosky) 박사는 어떤 식품보조제는 복용하는 약물의 효과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허브(herb)차로 사용하는 망종화(ST. John's Wort)는 피임약의 효과를 줄일 수 있으며 은행잎 추출물(ginkgo biloba)은 비타민 E와 함께 복용할 때 혈액응고를 막을 수 있고 혈액 응고를 막아 주는 와파린(warfarin)이나 아스피린과 함께 사용할 경우 장기 내 출혈이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식품보조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 및 예방본부에서 시행한 전국 건강 및 영양조사에 의하면 2005-2008년 사이에 미국인 중 7,200만 명이 처방약과 함께 어떤 형태의 영양보충제나 식품보조제와 함께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FDA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각종 영양보충제나 식품보조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연산(natural) 또는 식물 추출물

(herbal)이라 해도 안전한 것이 아니라 했다.

모제스키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에게서 이들 제품을 처방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다고 했다.

수술을 앞둔 환자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신

경을 써야한다. 환자는 주치의에게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품과 함께 건강보조제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어떤 보충제는 수술 전 몇 주간 보충제를 중지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FDA는 혈압과 맥박의 변화와 출혈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도 자기 주치의에게 복용하고 있는 식품보조제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FDA는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 진료실을 방문할 때마다 담당 의사에게 복용하고 있는 모든 영양보충제나 식품보조제와 약품의 목록을 만들어 보여준다. 목록에는 복용량과 빈도를 표기한다.
- 의사에게 최근의 질병, 수술여부 및 처치를 받은 내용과 건강상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임신 및 수유 여부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㉞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

사우회 소식

불영사 계곡 산행

경향신문

경향사우회 OB산악회(회장 장 옥·본회 회우)는 지난 11월 7일 창립 18주년을 기념해 경북 울진 불영사계곡을 찾았다. 이날 산행에는 장 옥 회장을 비롯 김성모 맹태균 여구만 임상학 본회 회우 등 19명이 참여했다.

스마트 폰 교육 실시

조선일보

조선일보사우회(회장 인보길·본회 부회장)는 지난 한달동안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반 까지 스마트 폰 교육을 실시했다. KT가 주관한 이 교육에는 20여 회원이 참여했으며 특히 윤주영 전 문화공보부장관은 개근을 하는

등 회원들의 참여가 열정적이었다.

한우회보 14호 발행

한국일보

한국일보사우회(회장 제재형·본회 고문)는 지난 11월 22일자로 사우회보 제14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8면 컬러판으로 발행된 이번 회보는 ‘한국일보 새주인은 동화그룹’ 제하의 1면 머리 기사가 돋보인다. ‘한국일보를 빛낸 언론인 홍유선’ (2면·제재형 고문 집필), 임흥빈 본회 원로회우의 ‘한국일보를 말한다’ (3면), ‘나의 주간한국 창간시절’ (4면·김성우 본회 회우), ‘머리와 발이 함께 뛰는 열혈청년 이동복-이상희 부부’ (7면) 등 다채로운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각 언론사 사우회 송년회 일정

- 경향신문 = 12월 11일(목)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동아일보 = 12월 16일(화)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서울신문 = 12월 10일(수)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한국일보 = 12월10일(수) 오후 5시 소공동 한진빌딩 26층 한국일보대강당
- 조선일보 = 12월 17일(수) 오후 6시 조선일보 정동별관 2층
- 헤럴드 = 12월 8일(월) 오후 6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CBS = 12월 18(목)일 정오 목영빌딩 지하 1층
- MBC = 송년회 생략하고 11월 29일(토) 상암동 MBC사옥 견학
- SBS = 12월 1일(월) 오후 6시 서울 마포가든 호텔
- KBS = 12월 19일(금) 오후 5시 KBS 본관 지하식당

행복을 나눕니다



로컬푸드 사업지원

농민들의 직거래를 돕는 어플리케이션 및 웹 서비스
농작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농가 소득 확대 및 선순환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를 시작으로 김포, 포천, 세종 등 지속적인 지역 확대를 통해
ICT를 통한 농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정보 격차를 겪고 있는 30만명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음성 도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도서로 구성된 22만 2천여 건의 풍성한 콘텐츠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에게까지 행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IVE U

언제 어디서나 기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누구나,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개발로
지금까지 약 20만 건의 참여를 이루어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CT를 통해 편리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ICT 기술이
모두를 행복으로
연결합니다

SK텔레콤의 ICT가
행복을 키우는 직거래장터가 되고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이 되고
행복을 나누는 기부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더 쉽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SK텔레콤은 ICT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행 斷想

안보 관광의 하루

나와 아내는 이번 가을엔 의미 있는 관광을 하자는데 의기투합했다. 그래서 떠난 것이 하루짜리 안보관광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의 형님 중 한 분은 6·25전 상자로 제대 후 천수를 다한 뒤 작고하시어 대전 현충원에 잠드셨지만, 한 분은 휴전 무렵 금화전투에서 육군 소위로 전사했으나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형님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보기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 화천으로 향했다.

날씨는 가을답게 청명했다. 화천 땅에 다다른 것은 10월 17일 오전 10시경. 내가 탄 차가 맨 처음 멈춘 곳은 ‘꺼떡다리’라는 곳이었다. 남한 최초의 수력발전소 가동을 위해 건설한 목재 다리다. 건립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귀중한 교량사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는 깊은 산속으로 굽이굽이 돌아가면 파로호(破虜湖)를 가슴에 품은 고요한 마을이 나타난다. 마을이라고 해봤자 겨우 세 가구가 전부인 이를 하여 ‘비수구미’ 마을이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깨끗한 자연, 한가로운 마을 풍경이 절로 사색에 잠기게 만든다.

파로호는 6·25 당시 화천 전투에서 중공군 6만여 명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큰 전과를 올린 곳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구만리 저수지’로 불리던 이름을 ‘파로호’라 직접 명명하고 친필 휘호를 내려 장병들을 격려함으로써 얻어진 이름이다. 호수는 산 속에 있지만 마치 바다인 듯 일렁이며 푸른빛을 낸다. 파로호 상류에서 소형 보트를 이용해 마을로 들어가 건강식인 산채비빔밥으로 점심을 들고 호수를 거슬러 북쪽으로 차를 몰았다.

조금 더 올라가니 ‘평화의 댐’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북한의 입남댐이 붕괴되거나 고의로 파괴하여 물을 일시에 방류할 경우, 그 방어수단으로 댐을 만든 것이 평화의 댐이다. 몇 해 전 그 예측이 맞아 제 역할을 한 뒤로 안보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높이 125m, 길이 601m, 최대 저수량 26억3천만 톤을 자랑한다.

댐 바로 옆엔 ‘세계평화의 종’이 들어서 있다. 이 종은 세계 곳곳에 평화의 종소리를 울린다는 뜻에서 각국 분쟁지의 탄피와 포탄 등 무려 1만관을 기증받아 제작했다고 한다. 이 종소리가 북녘 땅을 비롯한 한반



장석영

·본회 회우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시인

도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으로 울려 퍼져 화해의 메시지가 되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평화의 댐 아래쪽에 한반도 모형의 돌 짝형상으로 만들어진 ‘비목(碑木) 공원’으로 갔다. 여기는 6·25전쟁의 아픔과 당시 희생되신 젊은 무명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곳이다. 이곳이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지 녀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로 시작 되는 국민가곡 ‘비목’의 발원지이다. 이 가곡은 이 곳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한명희씨가 작사하고 한국방송 PD로 있던 장일남씨가 곡을 붙여 만들었다고 한다. 돌 짝 한반도 가운데에는 고목으로 만든 ‘슬프고 애잔한 십자가’가 서 있고, 거기 나무 막대기 위에 낡고 녹슨 철모가 씌워져 있었다.

철모는 어느 병사의 흔적처럼 그곳에서 평화가 오는 날의 세월을 헤아리고 있는 듯 했다. 공원으로 오르는 길목 양쪽으로 이제 막 전투에서 돌아온 듯 고향 하늘을 바라보는 젊은 용사와 아이를 안은 채 전방을 응시하는 아낙네의 사모곡이 동상으로 만들어져 서 있다. 철조망과 비쩍 마른 나무인 비목과 녹슨 철모, 그리고 젊은 부부의 하염없는 기다림이 절절한 아픔으로 한 없이 다가왔다.

“앞으로는 이런 안보의 현장을 찾는 수학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월호 같은 참사도 안 일어나겠지요.” 자원봉사 안내원의 의미심장한 말이다. 비목 앞에서 나는 파비린내 나는 전투의 현장을 상상하며, 희생되신 젊음들을 되새기면서 남다른 애상(哀傷)에 젖었다. 그리고 다음의 <헌시(獻詩)>를 그분들에게 바쳤다.

“남과 북의 격전지 화천/ 한반도 모형 비목공원 그 한 가운데/슬프고 애잔한 나무 십자가/ 낡고 녹슨 철모는/ 조국수호의 아픈 숨결 간직한 채/평화가 오는 날만을 헤아린다/백척간두(百尺竿頭)의 운명 속에/파비린내 나는 전투의 현장에서/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고귀한 생명 아낌없이 바치신/아, 거룩한 넋이여!//산 넘고 물 건너/38선 따라 벌어진 격전의 현장마다/맑은 하늘 뒤덮은 푸연 포성 속에/피 흘리며 의롭게 산화(散華)하신/아, 젊은 넋이여!//그 영혼/이제 그날의 함성과 포성 밟았으니/여기 고원에서 비목(碑木)으로나마/부디 영면 하소서” [2]

‘따뜻한 남쪽나라’와 김만철씨

지난달 23일, 대전 유성에서 추계 세미나를 마치고 그 이튿날 청남대를 찾아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오전 11시가 됐을까. 일행은 3~4명씩 짝을 지어 애기꽃을 피우며 경내를 둘러봤다. 역대 대통령관을 둘러보고 청남대 본관을 보는 순서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고등학생들로 보이는 4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해설사의 설명이 한창이다.

충북도청에서 과견했다는 해설사는 이곳을 찾은 학생들에게 청남대에 관해 열심히 설명을 한다. “청남대는 따뜻한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고 말이다. 금방 나의 귀전을 종긋하게 한다. ‘따뜻한 남쪽’이란 말은 낯설지가 않다. 김만철씨가 한 말이다. 한 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사건이었다. 김만철씨 가족 11명이 망명을 한 사건이다. 필자는 27년 전에 있었던 그 때를 회고 해 보고자 한다.

1987년 1월 15일,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살고 싶어 왔다’는 김만철씨 일가 11명. 그는 대가족을 조그마한 감시선에 태워 일본 쓰루가 항에 입항했다. 그 전날 14일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져 온통 나라가 혼란스럽던 시기였다. 서슬 퍼런 군부 전두환 정부는 큰 호재를 만났다. 이 기회를 놓칠리 없었다.

오후 3시쯤 기사 마감 시간을 앞두고 MBC보도국은 출입처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와 기사 받는 소리에 500여 평의 큰 사무실은 매우 혼잡했다. 지금은 노트북으로 출입처에서 기사를 보내지만 그 때는 전화를 직접 걸어 기사를 송고할 때다. 그런데 바쁜 와중에 ‘북한에서 한 사람이 가족 11명을 데리고 망명했다는 전화가 걸려 온 것’이다. 설마 그럴 리가, 전화를 받은 사람은 “헛소리 하지 마라”며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다. (이상은 제보자가 KBS에서 한 말이다) 전화 받은 사람은 장난인줄 알았다.

MBC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제보자는 KBS에 전화를 했다. KBS는 이 제보 전화를 잘 소화해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보기 드문 특종을 했다. MBC는 전화 한 통 잘 못 받는 바람에 큰 특종을 놓친 것이다. ‘다 받은 밥상에 콧물을 빠트린 쥐이다.’ 특종을 KBS에 빼앗긴 MBC는 그 다음날 만회를 하기위해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9시 뉴스데스크 진행자 이득렬씨를 일본 쓰루가 항에 급파했다. 현지에 도착한 이득렬씨는 ‘뉴스데스크’를 그곳에서 1시간동안 위성으로 진행했다. 원래 1보를 놓친 언론사는 습성 상 후속 보도로 만회를



김휴선

·본회 회우
·전 MBC보도국 부국장

하는 법이다. KBS 박성범 앵커도 다음날인 17일 현지에서 방송을 했다.

김만철씨는 바로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니다. 1987년 1월은 추운 겨울이었다. 새벽 1시, 청진항에서 조그마한 감시선을 훔쳐 타고 탈출한 김만철씨는 영해를 벗어나기 위해 동쪽으로 달렸다. 그러나 낡은 배는 거센 파도에 부딪쳐 공해상에

서 엔진이 꺼졌다. 배는 정처 없이 남쪽으로 흘러내려 갔다. 조류에 떠밀려간 곳이 일본 영해 쓰루가 섬 근처였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발각돼 쓰루가 항에 닿은 내린 김만철씨는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원래 김만철씨는 인도네시아섬의 무인도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다고 망명이유를 말했다고 한다.

김만철씨가 내려오기 바로 전날인 1월 14일은 연세대학교 박종철군이 경찰의 심한 고문으로 사망한 날이어서 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때 전두환 군부는 이 기회를 그냥 돌리 없었다. 일본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고 마침내 김만철씨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망명하게 하는데) 성공했다. 부인과 장모 등 처가 가족까지 11명을 데리고 온 김만철씨는 국내는 물론 온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고도 남았다. 김만철씨는 한때 정부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고 정착금에 강의료다 보조금이다 해서 10억 여원을 벌여 잘 살았다. 하지만 ‘아름다운 꽃에는 벌레들이 날아드는 법’. 돈이 많다는 김만철씨 주변에는 온갖 사기꾼이 찾아들어 그 많은 재산을 몽땅 잃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현재 남은 가족은 과자봉지 만드는 일로 연명을 한다고 한다. 아들은 서울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으며, 두 딸 중 한 명은 남한사람과, 또 한명의 딸은 탈북한 인민군 출신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

김만철씨 사건은 어지간히 한국사회를 시끄럽게 한 사건이었다. 귀순자 한 사람이라도 아쉬웠던 시기에 11명의 대 가족을 이끌고 남쪽 나라를 찾아 온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갈라진 반도의 한쪽에서 살아가던 몇몇 사람들의 운명이 오묘하게 또는 구슬프게 꼬이기 시작한 날이다. 냉전시기 체제경쟁에서 여러모로 활용됐다가 이제는 무용지물이 돼 버린 이들. 남이나 북이나 영양가 없는 망명객은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특히 북한의 경우 신용불량자나 실업자들이라면 되돌려 보내기 일쑤다. 이렇듯 인심은 각박해졌다. [2]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K water
대한민국이 마시는 건강한 물



건강한 수돗물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넘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K-water의 새로운 약속
지금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한 물, K-water 프로젝트

Smart Water Grid 인프라 구축

Smart Water Grid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집적된 차세대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입니다. K-water는 SWG를 구축하여 물의 생산과 수송의 전 과정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인체에 이로운 건강한 물 생산

의료계와 협업으로 미네랄이 균형 있게 함유된 물을 생산하여 좋은 물의 참맛을 찾아내고 인체에 건강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Total Care Service 채택

수돗물 품질 확인제, 옥내 배관 내시경 탐사, 배관 세척 및 교체 등을 통해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 K-water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한국복싱 100년사 편찬 자문위원



고두현 논설위원(사진 왼쪽)·노진호 회우(사진 오른쪽)= 최근 ‘한국복싱 100년사’ 편찬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올해의 기부왕’ 대상받아



김성환(고바우 만화가)원로회우=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 김성환 화백이 지난 11월 1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있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주년 기념식에서 정기기부 및 유산기부 약정을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의 기부왕’ 대상을 받았다. 또 평생 쓴 100여 권의 책 인세를 사후 유산 기부하기로 서약하고 공동모금회 유산기부 회원 모임인 ‘레거시 클럽(Legacy Club)’에도 가입했다. 김성환 화백은 최근 KBS1 ‘한국 한국인’ 프로에 출연했다.

6·25참전사실 확인증 받아



김영호(전 KBS보도실 기자)본회이사= 지난 10월 28일 국방부로부터 6·25 참전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김 회우는 이 참전사실이 확인 됨에 따라 6·25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소정의 예우를 받게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비준 협의

박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회장(유니세프한국위원회 부회장)회우



= 아동 인권을 보호 존중하기 위한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을 맞아 11월 20일 국내 회원단체 대표 20명을 초청, 올 4월에 효력을 발효한 ‘개인청원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의 이해와 한국 비준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개인청원에 대한 제3선택’은 아동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권리를 국내서 회복하지 못했을 경우, 유엔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평화언론대상 수상



박 실(전 국회의원)회우= 11월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언론사협회(이사장 최종욱)로부터 국제평화언론대상을 받았다. 박 회우는 기자 협회장과 신문윤리위원 및 국제기자연맹(IFJ)집행위원 그리고 국회문공위원으로 언론기본법 폐지 등 한국 언론자유의 신장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뉴욕서 ‘건국 대통령 재조명’ 강연



안병훈(출판사 기파랑 대표·사진 왼쪽)·인보길(뉴데일리 대표·본회 부회장·사진 오른쪽)= 지난 11월 11일 뉴욕에서 인보길 대표는 재미동포들에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재조명한 기초강연을 했다. 한편 안병훈 대표는 이날 ‘사진과 함께 읽는 대통령 이승만’ 사진집

을 주최 측에 증정했다. 안 대표는 특히 조선일보 편집인이던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란 전시회를 열어 이 대통령 재평가 작업에 불을 지폈다.

‘일경언론문화상’ 수상자 선정



윤임술(일경문화재단 이사장)원로회우= 11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일경문화재단 이사회를 열고 2014년도 일경언론문화상 수상자를 결정했다. 상금 1천만원의 대상에는 전주 MBC의 ‘肉食의 반란’ 프로그램이 뽑혔다. 장려상에는 한라일보의 흑룡만리(제주발당), 국제신문의 특집 ‘부산을 극지연구 허브로하자’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12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갖는다.

한국영상자료원 파주보전센터 기공식



이병훈(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이사= 11월 5일 한국영상자료원 파주보전센터 기공식을 거행, 내년 10월 완공되는 이 파주보전센터에는 필름과 디지털 콘텐츠를 보존 복원하게 된다.

한국ABC협회 회장



이성준(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상담역= 한국ABC협회는 지난 11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성준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신임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성준 회장은 한국일보 편집국장 및 대표이사, 관훈클럽 총무, 언

론진흥기금 위원장을 지냈다. ABC협회는 신문 잡지등의 발행부수 공사기구로 국내 일간신문 176개사를 포함해 주간신문 잡지 전문지등 1403개 매체가 가입돼 있다.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 주제 특강



이재원(전 정부1장관실 차관)본회 자문회의 간사= 11월 5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센터 초청으로 ‘한국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운용에 관한 동태적고찰-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 특별강의를 했다. 이 회우는 그동안 한국의 국무총리에 관해 3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서울시 언론상 심사위원



이흥기(KBS사우회 부회장)회우= 2014년 서울시 언론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대상자 심사를 했다.

사무실 이전·특별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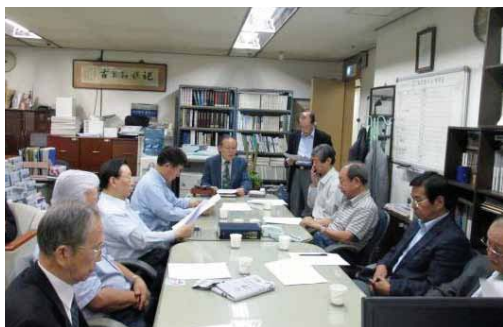


최귀조(평화언론포럼 회장)본회이사= 12월 5일 오전 11시 사무실을 서울 마포구 서강로 피스센터(6호선 광흥창역 2번 출구) 미지빌딩 2층으로 평화언론포럼 사무실을 이전하고 송년회 겸 창립9주년 특별강연회를 갖는다.

본회 임원 협찬금등 결의 143차 이사회, 정관 개정등 검토

제 143차 이사회가 지난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본회 회의실에서 열려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토의했다. 신입회원 가입, 의료비지원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다룬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임원 협찬금을 분담기로 결의했다(금년내로 회장 100만원 이상, 부회장 감사 각 50만원 이상, 이사 각 30만원 이상)

이날 이사회는 또한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오건환)가 결의 건의한 정관및 운영규정 개정(안)과 조직확대방안 등



을 토의한 결과 좀 더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이사회에서 개정여부를 결정해 총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주]

▶ 회우 경조사 ◀

결 혼

김양삼 회우 = 12월 6일(토) 오후 2시 명동 컨벤션 2층에서 딸 결혼
김영환 회우 = 12월 20일(토) KU컨벤션웨딩(건대동문회관 웨딩홀)2층 컨벤션홀에서 장녀 결혼

김영호 이사 = 11월 8일 오후 12시 서울 래노스블랑시 예식장에서 차남 결혼
임상학 회우 = 12월 14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딸 결혼

부 음

김종하 회우 = 11월 21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부인상, 발인 11월 24일 조성하 회우 = 11월 12일 서울 청구성심병원에서 부인상

▶ 주소·전화번호 변경 ◀

고학용 회우 = 서울 강동구 131번지 강동롯데캐슬퍼스트 112동 2201호

윤기로 회우 = 서울 강남구 역삼로 314, 304동 903호
(역삼동 개나리 푸르지오)

이민희 회우 = 서울 강남구 광평로 19길 10, 1007동 1402호
(수서동 746, 까치마을 아파트)

이선희 회우 = 서울 노원구 동일로 227길 86, 1618동 808호(상계동 주공아파트)
전화 010-6304-0334

정광현 회우 = 경기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51 삼성노블카운티 2동 812호
전화 031-208-9769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4년 10월 29일 부터 11월 26일까지)

강병국(14)	이대영(14)
강한필(14,15)	이민희(13)
김상준(입회비,14)	이윤래(14)
김성배(14)	조관희(14)
김한길(14)	최상완(14)
김현(15)	최종천(입회비,14)
김홍기(14)	최희조(14)
박응수(14)	홍인근(입회비)
손위수(14,15,16)	황우권(14)
위상욱(14)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CS-14-11-12 준법감사인, 심의필



당신답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한화생명이 오늘의 안심을 선물합니다

(무)The따뜻한 스마트변액통합보험
(무)The따뜻한한화생명어린이보험

따뜻한 오늘의 보험

(무)한화생명CI보험
(무)The행복한명품암보험

건강한 오늘의 보험

(무)트리플라이프연금보험
(무)한화생명변액연금보험

튼튼한 오늘의 보험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상담문의
1588-6363
www.hanwhalife.com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형 특약을 가입한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변액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액보험은 운용 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울산대교는 길이 8.38km인 세계 세 번째, 국내 최대 단경간 현수교로 2015년 5월 준공 개통 예정임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대한민국의 미래, 울산에서 시작합니다

울산이 꿈꾸는 내일은

기술이 예술을, 산업이 환경을,

오늘의 번영이 내일의 사람을 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에게 미래란

다가올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입니다

Think Tomorrow